

《碧鷄漫志》譯註(5)

이 태 형*

〈目次〉

I. 《碧鷄漫志》 제3권 역주
[3.38조~3.42조]II. 《碧鷄漫志》 제4권 역주
[4.43~4.50조]

I. 《碧鷄漫志》 제3권 역주 [3.38~3.42조]

[3.38원] 涼州曲

《涼州曲》, 《唐史》及《傳載》稱:天寶樂曲皆以邊地為名,若《涼州》、《伊州》、《甘州》之類,曲遍聲繁,名入破。又詔道調法曲與胡部新聲合作。明年,安祿山反,涼、伊、甘皆陷。《土蕃史》及《開元傳信紀》亦云:西涼州獻此曲,寧王憲曰:「音始于宮,散于商,成于角徵羽。斯曲也,宮離而不屬,商亂而加暴,君卑逼下,臣僭犯上,臣恐一日有播遷之禍。」及安史之亂,世頗思憲審音。而《楊妃外傳》乃謂上皇居南內,夜與妃侍者紅桃歌妃所製《涼州詞》,上因廣其曲,今流傳者益加。《明皇雜錄》亦云:「上初自巴蜀回,夜來乘月登樓,命妃侍者紅桃歌《涼州》,即妃所製。上親御玉笛為倚曲,曲罷無不感泣。因廣其曲,傳于人間。」予謂皆非也。《涼州》在天寶時已盛行,上皇巴蜀回,居南內,乃肅宗時,那得始廣此曲?或曰:因妃所製詞而廣其曲者,亦詞也,則流傳者益加,豈亦詞乎?舊史及諸家小說謂妃善歌舞,邃曉音律,不稱善製詞。今妃《外傳》及《明

* 한국고전번역원 직원

皇雜錄》所云，夸誕無實，獨帝御玉笛為倚曲，因廣之，流傳人間，似可信，但非《涼州》耳。唐史又云：其聲本宮調。今《涼州》見于世者凡七宮曲，曰黃鍾宮、道調宮、無射宮、中呂宮、南呂宮、仙呂宮、高宮，不知西涼所獻何宮也。然七曲中，知其三是唐曲，黃鍾、道調、高宮者是也。《脞說》云：「《西涼州》本在正宮，貞元初，康崑崙翻入琵琶玉宸宮調，初進在玉宸殿，故以命名，合眾樂即黃鍾也。」予謂黃鍾即俗呼正宮，崑崙豈能捨正宮外別製黃鍾涼州乎？因玉宸殿奏琵琶，就易美名，此樂工夸大之常態。而《脞說》便謂翻入琵琶玉宸宮調。《新史》雖取其說，止云康崑崙寓其聲于琵琶，奏于玉宸殿，因號玉宸宮調，合諸樂則用黃鍾宮，得之矣。張祜詩云：「春風南內百花時，道調涼州急遍吹。搗手便拈金梳舞，上皇驚笑悖孛兒。」又《幽閑鼓吹》云：「元載子伯和勢傾中外，福州觀察使寄樂妓數十人，使者半歲不得通。窺伺門下，有琵琶康崑崙出入，乃厚遺求通，伯和一試，盡付崑崙。段和上者，自製道調《涼州》，崑崙求譜，不許，以樂之半為贈，乃傳。」據張祜詩，上皇時已有此曲，而《幽閑鼓吹》謂段師自製，未知孰是。白樂天《秋夜聽高調涼州》詩云：「樓上金風聲漸緊，月中銀字韻初調。促張弦柱吹高管，一曲涼州入沈寥。」大呂宮，俗呼高宮，其商為高大石，其羽為高般涉，所調高調，乃高宮也。《史》及《脞說》又云：「涼州有大遍、小遍」，非也。凡大曲有散序、鞞、排遍、攔、正攔、入破、虛催、實催、袞遍、歇拍、殺袞，始成一曲，此謂大遍。而《涼州》排遍，予曾見一本有二十四段。後世就大曲製詞者，類從簡省，而管弦家又不肯從首至尾吹彈，甚者學不能盡。元微之詩云：「逡巡大遍《梁州》徹。」又云：「《梁州》大遍最豪嘈。」《史》及《脞說》謂有大遍小遍，其誤識此乎？

[3.38] 양주곡

〈양주곡(涼州曲)〉¹⁾은 《당사(唐史)》와 《전재(傳載)》²⁾에 다음과 같이

1) 양주곡(涼州曲) : 《신당서》 권22 〈예악지(禮樂志)〉에 “양주곡은 본래 서량(西涼)에서 바쳤는데, 그 소리가 본래 궁조(宮調)이고 대편(大遍)과 소편(小遍)이 있었다. 당나라 때에 세상이 태평하므로 사람들이 보통 악곡에 싫증나서 이상

말하였다. “천보(天寶)³⁾ 연간의 악곡은 모두 변방의 지명으로 곡명을 삼는다. 예를 들면 <양주곡>, <이주곡(伊州曲)>, <감주곡(甘州曲)> 같은 부류는 곡조가 빠르고⁴⁾ 소리가 화려해서 입파(入破)⁵⁾라고 이름하였다. 또한 도조궁(道調宮)⁶⁾의 법곡(法曲)과 호부(胡部)의 새로운 소리⁷⁾를 합쳐서 만들라고 조칙을 내렸다. 이듬해에 안록산(安祿山)이 반란을 일으키자 양주, 이주, 감주가 모두 함락되었다.”

《토번사(土蕃史)》⁸⁾와 《개원전신기(開元傳信記)》⁹⁾에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서량주(西涼州)에서 이 곡을 바치니 영왕(寧王) 이현

한 악곡, 특히 외국의 악곡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서량에서 중앙아시아 지방 민족의 악곡을 들여왔으므로, 그 곡조를 양주곡이라 하였다.

- 2) 전재(傳載) : 서명이 아니라, 역사서나 기타 여러 서적에 수록되어 전해지는 기록물을 가리킨다.
- 3) 천보(天寶) : 당 현종 말기의 연호로, 742년에서 756년까지이다.
- 4) 곡조가 빠르고 : 원문 ‘곡편(曲遍)’에서 두루 편(遍)에는 빠르다는 뜻은 없지만, ‘두루 미치다’의 의미에서 빠른 동작의 춤에 어울리는 빠르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 5) 입파(入破) : 당나라 때의 대곡(大曲)에는 산서(散序), 중서(中序), 파(破)의 세 부분이 있는데, 입파는 파 부분의 첫 번째 곡으로 음의 진행이 빠르고 빠른 동작의 춤이 따른다.
- 6) 도조궁(道調宮) : 송나라 진양(陳陽)이 지은 《악서(樂書)》<곡조하(曲調下)>에 “속악조(俗樂調)에 칠궁(七宮)·칠상(七商)·칠각(七角)·칠우(七羽)가 있어 모두 28조이고 치조(徵調)는 없다. 궁조(宮調)는 정궁(正宮)·고궁(高宮)·중려궁(中呂宮)·도조궁·남려궁(南呂宮)·선려궁(仙呂宮)·황종궁(黃鍾宮)이다.”라고 하였다.
- 7) 호부(胡部)의 새로운 소리 : 당나라 때 호악(胡樂)을 관장하던 기구인데, 호악을 지칭하기도 한다. 호악은 서량 일대에서 유입된 것으로 당시에 호부신성(胡部新聲)이라고 일컬어졌다.
- 8) 토번사(土蕃史) : 역시 서명이 아니라, 정사 기록 중에 토번(吐蕃) 지역의 역사를 기록한 《당사(唐史)》의 <토번전(吐蕃傳)>을 지칭한다.
- 9) 개원전신기(開元傳信記) : 당나라 정간(鄭綮)이 지은 역사서로 개천전신기(開天傳信記)라고도 한다. 정간은 영양(滎陽)사람으로 소종(昭宗) 때 재상이 되었다. 이부원외랑이던 시절에 사회에 전해지는 전설이나 고사, 신기한 이야기 32개 조항을 수집한 책이다. 특히 현종이 사저에 생활하는 모습부터 태산에 봉선(封禪)하고 가무를 좋아하는 자로 등을 수록하여 《명황잡록(明皇雜錄)》만큼 정사(正史)에 참고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李憲)¹⁰이 말하기를, ‘소리는 궁조(宮調)에서 시작하여 상조(商調)에서 흠어지고 각치우(角徵羽)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곡은 궁조에서 분리되어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상조에서 어지러워지자 더욱 난폭해지니 군주는 아랫사람을 알아잡아보고 신하는 군주를 참람되게 범하고 있습니다. 신은 하루 아침에 파천(播遷)하는 화를 만날까 두렵습니다.’라고 하였다. 안록산과 사사명(史思明)의 난¹¹이 일어나자 세상 사람들은 이현이 음악을 살피는 혜안을 자못 그리워하였다.

〈양비외전(楊妃外傳)〉에서 말하였다. “상황(上皇)이 남내(南內)¹²에 계실 적에 밤에 양귀비를 모시던 홍도(紅桃)라는 사람과 함께 양귀비가 지은 〈양주사(涼州詞)〉를 노래하니 상황이 그 곡을 널리 퍼뜨렸기 때문에, 오늘날 전해진 것이 더욱 많아졌다.” 《명황잡록(明皇雜錄)》¹³에 또 말하였다. “황제께서 처음 파촉(巴蜀)에서 돌아왔는데, 밤이 되어 달빛 받으며 누대에 올랐다. 양귀비를 모시던 홍도라는 사람에게 명하여 〈양주사〉를 노

- 10) 영왕(寧王) 이현(李憲) : 679-742, 본명은 이성기(李成器)로 당나라 종실이자 대신으로 당 예종(睿宗)의 장자이자 현종(玄宗)의 큰형이다. 처음에 영평군왕(永平郡王)에 봉해졌고 문명(文明) 원년(684年)에 황태자가 되었다가 뒤에 셋째 아우 이융기(李隆基)에게 제위를 양보하였다. 시와 노래를 잘 하고 음률에 정통하였으며 특히 갈고(鞞鼓)를 치고 피리를 잘 불었다. 태위를 역임하고 영왕(寧王)에 봉해졌다. 시호는 양황제(讓皇帝)이고 혜릉(惠陵)에 묻혔다.
- 11) 안록산과 사사명(史思明)의 난 : 당나라 안록산과 사사명이 일으킨 난리. 당 현종(唐玄宗) 14년에 안록산이 범양(范陽)에서 반란을 일으켜 장안을 함락시키고 자칭 대연황제(大燕皇帝)가 되었다가 아들 경서(慶緒)에 의해 죽고, 경서는 또 사사명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사명이 죽은 후 아들 조의(朝義)가 뒤를 이었다가 대종(代宗) 원년에 이회선(李懷仙)에 의해 죽었다. 전후 9년에 걸친 난리를 안사의 난이라 한다.《唐書 卷225》
- 12) 남내(南內) : 당 현종이 만년에 거처했던 흥경궁(興慶宮)을 가리킨다. 안록산의 난리 때에 현종이 촉(蜀)으로 파천했다가 난이 평정된 뒤에 다시 경사(京師)로 돌아와서는 상황(上皇)이 되어 흥경궁에서 쓸쓸히 만년을 보냈던 것을 이른 말이다.
- 13) 명황잡록(明皇雜錄) : 당나라 정치회(鄭處誨)가 지은 것으로 당 현종의 일대기와 숙종의 국난극복 사실을 기록하였다. 내용이 자못 풍부하고 문자가 생동감 있다. 현종은 초기에 정치에 힘썼지만, 만년에 정사를 돌보지 않고 음악과 여색에 빠졌다는 사실을 가감없이 기록하였다. 《通鑿》《新唐書》

래하게 하니 바로 양귀비가 지었던 것이다. 황제께서 친히 노래에 맞춰 옥 피리를 부르니 노래가 끝나자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 곡을 널리 퍼뜨렸기 때문에 세상에 전하였다.”

나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양주곡>은 천보 연간에 이미 성행하였고, 상황이 파촉에서 돌아와 남내에서 거처할 때는 바로 숙종(肅宗)이 재위하는 때인데 어떻게 이 곡이 그제서야 널리 퍼질 수 있겠는가. 누군가 말하기를, “양귀비가 지었다는 가사로 인하여 그 곡을 널리 퍼뜨린 것이니 또한 <양주사>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전해진 것은 더욱 많아진 것이니, 어찌 또한 <양주사>이겠는가? 옛 역사서와 여러 작가의 소설에서 “양귀비는 가무를 잘 하고 음률의 조예가 깊다.”라고 말하지만, “사를 잘 짓는다.”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지금 <양비외전>과 《명황잡록》에서 언급한 내용은 과장되어 사실이 없는데, 유독 ‘황제께서 노래에 맞춰 옥피리를 부르니 인하여 널리 퍼지게 되었고 세상에 전해졌다는 말은 믿을만해보이지만 그렇다고 <양주사>만은 아닐 것이다.

《당사》에 또 “그 소리는 본래 궁조이다.”라고 하였다. 오늘날 세상에 나타난 <양주곡>은 모두 7 궁조곡(宮調曲)이니 황종궁(黃鐘宮), 도조궁, 무역궁(無射宮), 중려궁(中呂宮), 남려궁(南呂宮), 선려궁(仙呂宮), 고궁(高宮)인데, 서량주에서 바쳤던 원곡은 어느 궁조로 지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7 궁조곡 가운데에 그 3곡은 당나라 곡임을 알 수 있으니 황종궁, 도조궁, 고궁이 그것이다.

《좌설(胙說)》¹⁴⁾에 말하였다. “<서량주곡(西涼州曲)>은 본래 정궁(正宮)에 소속되는데, 정원(貞元)¹⁵⁾ 초기에 강곤륜(康崑崙)¹⁶⁾이 비파(琵琶)로

14) 좌설(胙說) : 중국어 사전의 한 종류로 자잘하면서 비속적인 단어나 의문을 해석한 것이다. 역대 여러 학자들이 남겼는데 지금은 송(宋)나라 장군방(張君房)의 저술이 전해진다.

15) 정원(貞元) : 당(唐) 덕종(德宗)의 연호이고, 785~805년을 말한다.

16) 강곤륜(康崑崙) : 《신당서》 권22 <예악지(禮樂志)>에 “양주곡은 본래 서량(西涼)에서 바쳤는데, 그 소리가 본래 궁조(宮調)이고 대편(大遍)과 소편(小遍)이 있었다. 정원 초기에 악공 강곤륜이 그 소리를 비파에다 붙여 옥신전(玉宸殿)

옥신궁조(玉宸宮調)에 번안하여 삽입하였다가 처음으로 옥신전(玉宸殿)¹⁷⁾에 바쳤기 때문에 이름지은 것으로 여러 악기와 합주하니 바로 황종궁이다.” 내가 생각하건대, 황종궁은 바로 통속적으로 부르는 정궁인데, 강곤륜은 어떻게 정궁을 버려두고 별도로 황종궁조인 〈양주곡〉을 지을 수 있겠는가. 옥신전에서 비파를 연주하였기에 쉽게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던 것으로 이 악공은 평범한 형태의 곡을 과장하였다. 그러나 《좌설》에는 “비파로 옥신궁조에 번안하여 삽입하였다.”라고 하였고, 《신당사(新唐史)》에서 비록 그 가설을 취하였지만, 단지 강곤륜이 비파에 그 소리를 담았다가 옥신전에서 연주하였기에 옥신궁조라고 불렀던 것이고, 여러 악기와 합주하니 황종궁을 사용하여 조화롭게 되었다.

장호(張祐)¹⁸⁾의 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봄바람 남내에 불어 꽃 만개할 때라	春風南內百花時
도조궁인 양주곡을 빠르게 불어보네	道調涼州急遍吹
손 뻗어 황금사발 들고 춤을 추나니	搗手便拈金椀舞
상황은 거친 춤사위 ¹⁹⁾ 에 놀라 웃는구나	上皇驚笑悖擎兒

또한 《유한고취(幽閑鼓吹)》²⁰⁾에 말하였다. “원재(元載)²¹⁾의 아들 백화

에서 연주하였으므로 옥신궁조(玉宸宮調)라고도 한다.”라고 하였다.

- 17) 옥신전(玉宸殿) : 송나라 개봉부 궁궐 후원 태청루(太清樓) 동편에 위치한 진종(眞宗)이 거처하는 궁전으로 만여 권의 책을 장서하였다.
- 18) 장호(張祐) : 대략 785~849. 당나라 때 시인. 자는 승길(承吉)이고 하북 청하(清河) 사람이다. 명문 자제로 장공자라 불렸다. 원진(元稹)에게 배척 당한 뒤에 회남(淮南)을 떠돌았다. 궁사(宮詞), 산수, 변방의 시제를 표현하는데 능하여 《전당서(全唐詩)》에 시 2권 349수가 수록되었다. 저서로 《장처사시집(張處士詩集)》이 있다.
- 19) 거친 춤사위 : 시 제목은 〈파나이무(悖擎兒舞)〉로 춤을 추는 모습을 시로 표현한 것이다. 양주곡이 빠르기 때문에 춤 동작 역시 역동적이고 과격하다.
- 20) 유한고취(幽閑鼓吹) : 장고(張固)가 수집하고 정리한 당나라 말기의 기이한 소문과 사건 모음집이다. 사건이 대부분 불교 법계와 관련되고 허탄하여 증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주로 백거이, 이하, 한유가 시를 짓게된 고사나 상상으로 과장하여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伯和)²²⁾의 권세는 경향(京鄕)을 기울일 정도니 복주관찰사(福州觀察使)²³⁾가 악공과 기녀 수십명을 보내었는데 사자(使者)가 반년이 지나도록 원백화와 만나지 못했다. 원백화의 집안에 비파 악공 강곤륜이 출입하는 것을 엿보고 이내 후한 뇌물을 보내어 원백화를 만나고자 부탁하였다. 원백화는 시험하는 권한을 전부 강곤륜에게 맡겼다. 단화상(段和上)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도조곡인 〈양주곡〉을 제작하자 강곤륜이 악보를 구하였지만 허락하지 않고 음악의 반절만 주자 바로 세상에 전해졌다.” 장호의 시에 의거하면 상황제 시기에 이 곡이 있었고, 《유한고취》에 ‘단악사(段樂師)가 스스로 제작하였다는데 무엇이 맞는지 알지 못한다.

백거이(白居易)의 〈추야청고조양주(秋夜聽高調涼州)〉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누대 위 가을바람 ²⁴⁾ 소리는 점점 쌀쌀해지고	樓上金風聲漸緊
달 빛 속 악기 ²⁵⁾ 는 비로소 운율이 어우러지네	月中銀字韻初調

- 21) 원재(元載) : 713~777. 당나라 대종(代宗) 때 사람으로, 자는 공보(公輔)이다. 이보국(李輔國)에게 빌붙어 관직이 중서시랑(中書侍郎)에까지 이르렀는데, 권세를 휘두르며 자제를 풀어 뇌물을 거두어들이고 충신을 배척하는 등 갖은 불의를 자행하다가 대종의 명으로 자진(自盡)하였다. 《新唐書 卷145 元載列傳》
- 22) 백화(伯和) : 원재의 아들로 봉상(鳳翔) 사람이다. 대종 때 원재가 재상에 오래 있자 비서승에 올랐는데 당시 권세가 상당해서 멋대로 행동하며 재화를 거두었으며 음악을 일삼으며 중궁에도 없는 기이한 악기를 모았다. 훗날 양주(揚州)로 좌천되어 진소유(陳少遊)와 교제하였다. 원재가 자진하자 양주에서 사사(賜死)되었다.
- 23) 복주관찰사(福州觀察使) : 당나라의 관찰사는 절도사보다 직급이 낮고 관할 구역이 작은 무관직이다. 복주관찰사는 원화(元和 806~820) 연간에 복건관찰사(福建觀察使)로 승격되고 황소의 난이 종료된 뒤 건녕(乾寧 894~898) 연간에 무위군절도사(武威軍節度使)가 되어 복주, 천주(泉州), 정주(汀州), 건주(建州), 장주(漳州)를 다스렸다.
- 24) 가을바람 : 원문 ‘금풍(金風)’은 가을바람이나 서풍(西風)을 뜻하는바, 오행(五行)의 금(金)은 계절에 있어서는 가을, 방위에 있어서는 서쪽이 된다.
- 25) 악기 : 원문 ‘은자(銀字)’는 생황이나 피리 같은 관악기 위에 은으로 글자를 새겨넣어 음조의 높낮이를 표시하였다. 가차하여 일반적인 악기나 악기의 연주를 가리킨다.

팽팽하게 줄과 안죽²⁶⁾ 당기고 소리 높혀 피리 부니 促張絃柱吹高管
양주사 한 곡은 맑은 가을 하늘²⁷⁾에 들어가네 一曲涼州入沈寥

대려궁(大呂宮)은 세간에서 고궁(高宮)이라 부르는데 그 상조(商調)은 고대석조(高大石調)²⁸⁾이 되고 우조(羽調)는 고반섭조(高般涉調)가 된다. 이른바 고조(高調)가 바로 고궁조(高宮調)이다.

《신당사》와 《좌설》에 또 “〈양주곡〉에는 대편(大遍)과 소편(小遍)이 있다.”라고 하는데 잘못되었다. 무릇 대곡(大曲)²⁹⁾에는 산서(散序), 급(鞞), 배편(排遍), 전(攔), 정전(正攔), 입파(入破), 실취(實催), 곤편(袞遍), 계박(歇拍), 쇄곤(殺袞)이 있어 비로소 한 곡을 이루니 이것을 대편이라 이른다. 〈양주곡〉은 배편으로 내가 일찍이 24단이 있는 어떤 판본을 본 적이 있다. 후세에 대곡을 가지고 사를 제작하는 사람은 대부분 간략하게 생략하는 기법을 따르며 관현악기 연주자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을 연주하려 하지 않나니, 심한 경우 연주법을 모두 배우지도 못하기도 한다. 원진(元稹)의 시에 “어느덧 대편 양주곡(梁州曲)³⁰⁾ 연주가 끝났네.”라고 하였

- 26) 안죽 : 안죽(雁足)은 거문고 같은 현악기에서 음을 조율할 때 줄 아래에 기러기 발 같은 삼각뿔 췌기를 움직여 음을 맞춘다.
- 27) 맑은 가을 하늘 : 원문 ‘혈요(沈寥)’는 행하게 비고 고요한 하늘이라는 뜻이니, 곧 높고 맑은 가을 하늘을 말한다.
- 28) 고대석조(高大石調) : 송나라 진양(陳陽)이 지은 《악서(樂書)》〈곡조 하(曲調下)〉에 “상조(商調)는 월조(越調)·대석조(大石調)·고대석조(高大石調)·쌍조(雙調)·소석조(小石調)·혈지조(歇指調)·임종상(林鍾商)이고, 우조(羽調)는 중려조(中呂調)·정평조(正平調)·고평조(高平調)·선려조(仙呂調)·반섭조(般涉調)·고반섭조(高般涉調)·황중우(黃鍾羽)이다.” 하였다.
- 29) 대곡(大曲) : 전통음악이다. 중국 역사상 존재하는 중요한 음악 중에 대형 악곡으로 특히 한위(漢魏)의 상화가(相和歌), 육조시대의 청상악(清商樂), 당송의 연악(燕樂)의 대곡을 가리킨다. 이 가곡들은 악기 연주와 대형 가무곡을 겸한다. 뒤에 나오는 용어들은 모두 당송시대의 대곡 곡조 이름이다. 곡조의 빠르기나 박자의 특징으로 곡조 이름을 삼았다. 이러한 곡조가 하나의 대곡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대편(大遍)이라고 한다. 왕국유(王國維)의 《당송대곡고(唐宋大曲考)》에 내용이 나온다.
- 30) 양주곡(梁州曲) : 당나라 때 교방(敎坊)의 대곡 중에 양주(涼州)라는 곡조가 있

고, 또한 “대편 양주곡이 가장 호방하고 떠들썩하다.”라고 하였다. 《신당사》와 《좌설》에는 ‘대편과 소편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이것을 오해하였단 말인가.

[3.39원] 伊州

《伊州》見于世者凡七商曲：大石調、高大石調、雙調、小石調、歇指調、林鍾商、越調，第不知天寶所製七商中何調耳。王建《宮詞》云：「側商調裏唱《伊州》。」林鍾商，今夷則商也，管色譜以凡字殺，若側商則借尺字殺。

[3.39역] 이주곡

《이주곡(伊州曲)》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모두 7상곡(商曲)³¹⁾으로 대석조(大石調), 고대석조, 쌍조(雙調), 소석조(小石調), 헐지조(歇指調), 임종상(林鐘商), 월조(越調)인데, 다만 천보(天寶) 연간에 지은 7상곡 중에 어떤 조(調)인지는 알 수 없을 따름이다. 왕건(王建)의 <궁사(宮詞)>³²⁾에 “측상조(側商調)³³⁾ 안에서<이주곡>을 불렀다.”라고 하였다. 임종상은 오늘

었는데, 이것이 송나라 때에 와서 양주(梁州)로 바뀌었다. 이 시는 원진의 <연창궁사(連昌宮辭)>이다. <양주령(梁州令)>이라고도 한다. 준순(逡巡)은 잠시라는 뜻이니, 어느덧 이미 양주곡을 두루 연주했다는 것이다. 철(徹)은 파한다(끝낸다)는 뜻이다.

- 31) 상곡(商曲) : 청상곡(淸商曲)을 말하는데, 악부(樂府)의 가곡(歌曲) 이름으로 가을에 속하는 상성(商聲)의 맑고도 슬픈 노래를 말한다.
- 32) 궁사(宮詞) : 고대 시체 중의 하나로, 대부분 궁중 생활의 소소한 부분을 주제로 칠언절구 형식으로 짓는다. 당나라 왕건(王建)이 현종(玄宗) 황제의 궁정생활을 읊은 <궁사> 100수가 월조가 되고, 오대 시대 후촉(後蜀)의 임금 맹창(孟昶)의 왕비 비씨(費氏)가 왕건의 작품을 본떠서 자신이 경험한 궁정생활을 100수로 읊어 궁사의 정형을 이루었다. 이후 송대의 왕규(王珪)·송백(宋白)·장공상(張公庠)·주언질(周彥質) 등 저명 문인들과 심지어 휘종이나 양태후(楊太后)까지 지었으며, 명나라 말 진중(陳琮)·장지교(蔣之翹)·진징란(秦徵蘭) 3인의 <천계궁사(天啓宮詞)> 등에 이르기까지 활발히 창작되었다.
- 33) 측상조(側商調) : 옛날 금조(琴調) 중에 하나이다. 송나라 강기(薑夔)가 지은 <금곡(琴曲)> <측상조(側商調)>에 “거문고 일곱 줄은 산성(散聲)으로 궁상각

날의 이척상(夷則商)³⁴인데, 관색보(管色譜)³⁵에는 범(凡)자로 끝낸³⁶ 반면, 측상조 같은 경우에는³⁷ 척(尺)자를 빌려서 끝마쳤다.

[3.40원] 甘州

《甘州》世不見，今仙呂調有曲破，有八聲慢，有令，而中呂調有象甘州八聲，他宮調不見也。凡大曲就本宮調製引、序、慢、近、令，蓋度曲者常態。若象甘州八聲，即是用其法于中呂調，此例甚廣。偽蜀毛文錫有甘州遍，顧夔、李珣有倒排甘州，顧夔又有甘州子，皆不著宮調。

[3.40역] 감주곡

《감주곡(甘州曲)》은 세상에 보이지 않는다. 오늘날의 선려조(仙呂調)³⁸인 곡파(曲破)³⁹가 있고, <팔성감주만(八聲甘州慢)>⁴⁰이 있으며 영

치우를 갖춘 것을 정률(正律)으로 삼으니 만각(慢角), 청상(淸商), 궁조(宮調), 만궁(慢宮), 황종조(黃鍾調)가 이것이다. 변궁(變宮)과 변치(變徵)가 산성이 되는 것은 측률(側弄), 측초(側楚), 측촉(側蜀), 측상(側商)이 이것이다. 측상조는 없어진지 오래이다. 측상조는 바로 황종조의 측성(側聲)이다.”라고 하였다.

- 34) 이척상(夷則商) : 5성(聲) 12율(律) 8음(音) 중에 12율은 고대 악률의 표준이 되는 음으로, 양률(陽律)과 음률(陰律)로 나뉘는데, 양은 율이라 하고 음은 여(呂)라 한다. 양률은 황종(黃鍾), 태주(太簇), 고선(姑洗), 유빈(蕤賓), 이척(夷則), 무역(無射)이고, 음률은 대려(大呂), 협종(夾鍾), 중려(仲呂), 임종(林鍾), 남려(南呂), 응종(應鍾)이다.
- 35) 관색보(管色譜) : 송나라 때 민속 악보 중에 관현악기의 악보를 관색보라 불렀다.
- 36) 끝낸 : 원문 ‘쇄(殺)’는 생명을 죽인다는 기본 의미 이외에 중지하거나 결속이나 수속(收束)한다는 보조동사의 의미가 있으며 여기에서는 노래의 말미에 끝마친다는 의미로 쓰였다.
- 37) 경우에는 : 원문은 ‘卽’인데, 지부족재본(知不足齋本) 등의 이본에 ‘則’으로 되어 있어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 38) 선려조(仙呂調) : 송나라 진양(陳旸)이 지은 《악서(樂書)》<곡조 하(曲調下)>에 “속악조(俗樂調)에 칠궁(七宮)·칠상(七商)·칠각(七角)·칠우(七羽)가 있어 모두 28조이고 치조(徵調)는 없다. 우조(羽調)는 중려조(中呂調)·정평조(正平調)·고평조(高平調)·선려조(仙呂調)·반섭조(般涉調)·고반섭조(高般涉調)·황종우(黃鍾羽)이다.” 하였다.
- 39) 곡파(曲破) : 12율 중에서 음(陰)에 속하는 음(音)에 곡에 맞추어 노래하는 곡

사(令詞)⁴¹)가 있다. 중려조(中呂調)에 〈상감주팔성(象甘州八聲)〉이 있는 반면 다른 궁조(宮調)는 보이지 않는다. 무릇 대곡(大曲)은 본래 궁조(宮調)를 가지고 인(引), 서(序), 만(慢), 근(近), 령(令)을 제작한 것이니 대개 새로운 가곡을 창작한 것⁴²)은 형태가 고정되었다. 〈상감주팔성〉 같은 것은 바로 중려조에 그 법도를 사용하니 이러한 예시는 매우 광범위하다. 위촉(僞蜀) 모문석(毛文錫)⁴³)이 지은 〈감주편(甘州遍)〉이 있고 고흥(顧夙)⁴⁴)과 이순(李珣)⁴⁵)이 지은 〈도배감주(倒排甘州)〉가 있으며 고흥은 또 〈감주

이다.

- 40) 팔성감주만(八聲甘州慢) : 북송의 유명(柳永)의 작품으로 강호를 유랑하는 비분 강개를 서술하였다. 전체 사패가 모두 여덟 운자라서 팔성이라고도 한다. 원문을 간단히 소개한다. “對瀟瀟暮雨灑江天 一番洗清秋 漸霜風淒緊 關河冷落 殘照當樓 是處紅衰翠減 苒苒物華休 惟有長江水 無語東流 不忍登高臨遠 望故鄉渺邈 歸思難收 數年來蹤跡 何事苦淹留 想佳人妝樓顙望 誤幾回天際識歸舟 爭知我 倚欄杆處 正恁凝愁”
- 41) 영사(令詞) : 사(詞)의 제목 뒤에, ‘만(慢)·영(令)’ 같은 곡조 빠르기를 나타내는 말이 붙기도 하고, 연창법(演唱法)을 나타내는 ‘최자(催子)’, 서곡(序曲)을 의미하는 말인 ‘인자(引子)’ 같은 말이 따라 붙기도 한다.
- 42) 새로운 가곡을 창작한 것 : 원문 ‘도곡(度曲)’은 가사나 가곡을 창작하거나 가곡을 부르는 것을 말한다. 《한서(漢書)》〈원제기찬(元帝紀贊)〉에 “금슬을 연주하고, 통소를 불며, 스스로 가곡을 지어 노랫소리를 입히며 박자를 나누니 오묘함이 궁극에 이른다.〔鼓琴瑟 吹洞簫 自度曲 被歌聲 分判節度 窮極幼眇〕”라는 내용이 나온다.
- 43) 위촉(僞蜀) 모문석(毛文錫) : 자는 평규(平珪)이고 고양(高陽)사람이다. 오대시대 전촉(前蜀)과 후촉(後蜀)의 대신이자 사패 시인이다. 14세 때 진사에 급제하여 전촉 고조 왕건(王建)을 섬겼다. 한림학사승지와 예부상서, 관추밀원사 등을 역임하였다. 전촉이 망하자 후당(後唐)과 후촉을 섬겼다. 구양형(歐陽炯)과 함께 후촉 군주를 찬양하는 사패를 지었다. 저서로는 《전촉기사(前蜀紀事)》, 《다보(茶譜)》 등 사패가 30여 수가 《화간집(花間集)》과 《당오대사(唐五代詞)》에 남아있다.
- 44) 고흥(顧夙) : 928년 전후 오대시대에 살았던 시인이다. 생몰년과 자, 거주지가 미상이다. 무주자사(茂州刺史)를 역임하다 후촉이 세워지자 맹지상(孟知祥)을 섬겨 태위에 이르렀다. 사패를 잘 지었는데 온정균(溫庭筠)과 사풍이 비슷하다. 지금까지 《화간집(花間集)》에 55수가 전하는데 모두 남녀상열지사이다.
- 45) 이순(李珣) : 855~930. 만당시기의 시인으로 자는 덕윤(德潤)이고 사천성 재주(梓州) 사람이다. 후촉에 출사한 뒤로 다른 왕조에 출사하지 않았다. 저서로는

자(甘州子)》가 있지만, 모두 궁조(宮調)로 짓지는 않았다.

[3.41] 〔원〕 《胡渭州》

《胡渭州》, 《明皇雜錄》云:「開元中, 樂工李龜年弟兄三人皆有才學盛名。彭年善舞, 鶴年、龜年能歌, 製《渭州曲》, 特承顧遇。於東都大起第宅, 僭侈之制, 逾于公侯。」唐史《吐蕃傳》亦云:「奏《涼州》、《胡渭》、《錄要》雜曲。」今小石調《胡渭州》是也。然世所行《伊州》、《胡渭州》、《六么》, 皆非大遍全曲。

[3.41] 〔역〕 호위주

〈호위주(胡渭州)〉⁴⁶⁾에 대해 《명황잡록(明皇雜錄)》에서 이르렀다. “개원(開元)⁴⁷⁾ 연간에 악공 이귀년(李龜年)⁴⁸⁾ 형제 세 명 모두 재능과 학문으로 굉장한 명성을 얻었다. 이팽년(李彭年)은 춤에 잘 찼고 이학년(李鶴年)과 이귀년은 노래를 잘 불렀는데, 〈위주곡(渭州曲)〉을 지어서 특별히 사랑을 받았다. 동도(東都)⁴⁹⁾에 큰 저택을 지었는데, 참람하게 사치를 부린 저택 제도는 귀족 제후를 뛰어넘었다.”《당사(唐史)》의 〈토번전(吐蕃傳)〉에 역시 “〈양주곡(涼州曲)〉, 〈호위주〉, 〈녹요(錄要)〉 등 잡다한 곡조를 연주한다.”라고 말하였다. 오늘날 소석조(小石調)⁵⁰⁾인 〈호위주〉가 이것

《경요집(瓊瑤集)》이 있지만, 산실하고 지금은 《당오대사(唐五代詞)》에 5수가 전하는데 대부분 비분강개하는 소리이다.

46) 호위주(胡渭州): 당나라 시인 장호(張祜)가 지은 시사이다. 장호는 자가 승길(承吉)이고 청하(清河) 사람이다. 장호는 명문세족으로 태어나 장공자(張公子)로 불리고 해내명사(海內名士)의 영예가 있었다. 장호는 평생토록 시와 노래를 창작해서 탁월한 성취를 이루었는데 《전당시(全唐詩)》에 349수의 시가가 수록되었다. 호위주를 간단히 소개한다. “亭亭孤月照行舟 寂寂長江萬裏流 鄉國不知何處是 雲山漫漫使人愁”

47) 개원(開元): 당 현종(唐玄宗)의 연호로 713년에서 741년까지이다.

48) 이귀년(李龜年): 당 현종 때의 음악가로 음률(音律)에 능통하였다.

49) 동도(東都): 중국 하남성(河南省)의 낙양(洛陽)으로 전한의 고조가 장안(長安)에 도읍하고 후한의 광무(光武)가 여기에 도읍을 하였기에 동도(東都)라 불리웠다.

이다. 그러나 세상에 유행하였던 〈이주곡(伊州曲)〉, 〈호위주〉, 〈육요(六么)〉는 모두 대편(大遍)⁵¹⁾의 전체 곡조는 아니다.

[3.42] 六么

《六么》，一名《綠腰》，一名《樂世》，一名《錄要》。元微之《琵琶歌》云：「《綠腰》散序多擺撚。」又云：「管兒還為彈《綠腰》，《綠腰》依舊聲迢迢。」又云：「逡巡彈得《六么》徹，霜刀破竹無殘節。」沈亞之《歌者葉記》云：「合韻奏《綠腰》。」又志盧金蘭墓云：「為《綠腰》《玉樹》之舞。」唐史《吐蕃傳》云：「奏《涼州》、《胡渭》、《錄要》雜曲。」段安節《琵琶錄》云：「《綠腰》，本《錄要》也，樂工進曲，上令錄其要者。」白樂天《楊柳枝詞》云：「《六么》《水調》家家唱，《白雪》《梅花》處處吹。」又《聽歌六絕句》內，《樂世》一篇云：「管急弦繁拍漸稠，《綠腰》宛轉曲終頭。誠知《樂世》聲聲樂，老病人聽未免愁。」注云：「《樂世》一名《六么》。」王建《宮詞》云：「琵琶先抹《六么》頭。」故知唐人以「腰」作「么」者，惟樂天與王建耳。或云：此曲拍無過六字者，故曰《六么》。至樂天又獨謂之《樂世》，他書不見也。《青箱雜記》云：「曲有《錄要》者，錄《霓裳羽衣曲》之要拍。」《霓裳羽衣曲》乃宮調，與此曲了不相關。士大夫論議，嘗患講之未詳，率然而發，事與理交違，幸有證之者，不過如聚訟耳。若無人攻擊，後世隨以憤憤，或遭禍于天下，樂曲不足道也。《琵琶錄》又云：「貞元中，康

50) 소석조(小石調) : 송나라 진양(陳陽)이 지은 《악서(樂書)》〈곡조 하(曲調下)〉에 “속악조(俗樂調)에 칠궁(七宮)·칠상(七商)·칠각(七角)·칠우(七羽)가 있어 모두 28조이고 치조(徵調)는 없다. 상조(商調)는 월조(越調)·대석조(大石調)·고대석조(高大石調)·쌍조(雙調)·소석조·혈지조(歇指調)·임종상(林鍾商)이다.

51) 대편(大遍) : 《신당서》 권22 《예악지(禮樂志)》에 “양주곡은 본래 서량(西涼)에서 바쳤는데, 그 소리가 본래 궁조(宮調)이고 대편(大遍)과 소편(小遍)이 있었다.”라고 하였다. 왕국유(王國維)의 《당송대곡고(唐宋大曲考)》에 “대곡(大曲)은 대형 악곡으로 특히 한위(漢魏)의 상화가(相和歌), 육조시대의 청상악(淸商樂), 당송의 연악(燕樂)의 대곡을 가리킨다. 이 가곡들은 악기 연주와 대형 가무곡을 겸한다. 곡조의 빠르거나 박자의 특징으로 곡조 이름을 삼았다. 이러한 곡조가 하나의 대곡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대편(大遍)이라고 한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崑崙琵琶第一手，兩市祈雨鬥聲樂，崑崙登東綵樓，彈新翻羽調《綠腰》，必謂無敵。曲罷，西市樓上出一女郎，抱樂器云：『我亦彈此曲，兼移在楓香調中。』下撥聲如雷，絕妙入神，崑崙拜請為師。女郎更衣出，乃僧善本，俗姓段。」今《六么》行于世者四：曰黃鍾羽，即俗呼般涉調；曰夾鍾羽，即俗呼中呂調；曰林鍾羽，即俗呼高平調；曰夷則羽，即俗呼仙呂調；皆羽調也。崑崙所謂新翻，今四曲中一類乎？或他羽調乎？是未可知也。段師所謂楓香調，無所著見。今四曲中一類乎？或他調乎？亦未可知也。歐陽永叔云：「貪看《六么》花十八。」此曲內一疊名花十八，前後十八拍，又四花拍，共二十二拍。樂家者流所謂花拍，蓋非其正也，曲節抑揚可喜，舞亦隨之。而舞築球《六么》，至花十八益奇。

[3.42] 육요

〈육요(六么)〉⁵²⁾는 일명 〈녹요(綠腰)〉, 〈낙세(樂世)〉, 〈녹요(錄要)〉라고도 한다. 원진(元稹)의 〈비파가(琵琶歌)〉⁵³⁾에는 “육요⁵⁴⁾ 산서(散序)⁵⁵⁾에는 농연법

52) 육요(六么) : 유영(柳永)이 지은 사패로 아주 섬세하고 완곡하게 여인과 정인의 만남을 노래하였다. 여인의 속마음과 행동을 표현하여 시인이 여인의 애절한 사랑에 감정이입된 표현이 돋보인다. 나중에 안기도(晏幾道) 역시 같은 제목의 사를 지었다. 전곡을 소개한다. “淡煙殘照 搖曳溪光碧 溪邊淺桃深杏 迤邐染春色 昨夜扁舟泊處 枕底當灘積 波聲漁笛 驚回好夢 夢裏欲歸歸不得 展轉翻成無寐 因此傷行役 思念多媚多嬌 咫尺千山隔 都為深情密愛 不忍輕離拆 好天良夕 鴛帷寂寞 算得也應暗相憶 ”

53) 비파가(琵琶歌) : 당나라 원진(779~831)이 지은 7언시이다. 비파로 연주하는 가곡의 성격을 나열하여 악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내용이 길어 해당 부분만 소개한다. “琵琶宮調八十一 旋宮三調彈不出 玄宗偏許賀懷智 段師此藝還相匹 自後流傳指撥衰 昆命善才徒爾為 -중략- 曲名無限知者鮮 霓裳羽衣偏宛轉 涼州大遍最豪嘈 六麼散序多籠撚 -중략- 著作施樽命管兒 管兒久別今方睹 管兒還為彈六么 六么依舊聲迢迢 猿鳴雪岫來三峽 鶴唳晴空聞九霄 逡巡彈得六么徹 霜刀破竹無殘節 ”

54) 육요 : 원문은 ‘녹요(綠腰)’인데, 〈비파가(琵琶歌)〉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밑에 두 부분 역시 같다.

55) 산서(散序) : 당나라 때의 대곡(大曲)에 시작하는 부분으로 산서, 중서(中序), 입파(入破)의 세 부분이 있는데, 산서는 산판(散板)과 절주(節奏)가 자유롭고 기악은 독주하거나 돌아가며 연주하다 합주하지만 노래 부르지 않고 춤도 추

(籠撚法)⁵⁶)이 많다(六么散序多籠撚)”라고 하였고 또 “피리 악공이 다시 육요를 연주하니, 육요는 예전처럼 소리가 아득하네.(管兒還爲彈六么 六么依舊聲迢迢)”라고 하였고, 또 “어느덧 육요 연주가 끝나니 날카로운 칼로 대나무를 쪼개듯 약한 박자가 없구나(逡巡彈得六么徹, 霜刀破竹無殘節)”라고 하였다.

심아지(沈亞之)⁵⁷)의 《가자엽기(歌者葉記)》⁵⁸)에 말하기를 “운율에 맞춰 〈녹요〉를 연주했다.”라고 하였다. 또〈노금란묘지명(盧金蘭墓志銘)〉⁵⁹)에 “〈녹요〉와 〈옥수(玉樹)〉의 무용을 만들었다.”라고 하였다.《당사(唐史)》〈토번전(吐蕃傳)〉에 이르기를, “〈양주곡(涼州曲)〉, 〈호위주(胡渭州)〉, 〈녹요〉의 잡다한 가곡을 연주하다.”라고 하였다. 단안절(段安節)⁶⁰)의 《비파록(琵琶錄)》⁶¹)

지 않는다. 산서 여섯 편은 박자가 없기 때문에 춤을 추지 않는다는 주석이 있다. 백거이의 《예상우의가(霓裳羽衣歌)》

- 56) 농연법(籠撚法) : 원문은 ‘농연(攏撚)’인데, 〈비파가(琵琶歌)〉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농연은 비파를 연주할 때 두 손가락을 사용하는 연주법이다.
- 57) 심아지(沈亞之) : 781~832. 자는 하현(下賢)으로 오흥(吳興) 사람이다. 시에 능하고 문장도 잘 지은 당나라의 문학가이다. 장안에 가서 한유의 문하에 들어가 이하(李賀), 두목(杜牧), 장호(張祜) 등과 교류하였다. 문집 3권이, 《신당서(新唐書)》〈예문지(藝文志)〉에 실렸다. 대표작은 《상중원해(湘中怨解)》, 《이몽록(異夢錄)》, 《진몽기(秦夢記)》가 있다.
- 58) 가자엽기(歌者葉記) : 심아지가 지은 산문으로 역대 명창들의 일대기와 대표 가곡을 소개하였다. 관련 내용은 당나라 정원 원년(785)에 엽(葉)이라는 여인이 유향(柳巷)에게 노래를 배웠는데 녹요 악보를 한 번 보고서 노래하였는데, 운자에 맞춰 녹요를 연주하였다고 하였다.
- 59) 노금란묘지명(盧金蘭墓志銘) : 심아지가 지은 산문으로 노금란의 묘지명이다. 노금란은 자가 소화(昭華)로 누나 4명에 형제 없이 유복자로 태어나 기예를 배웠다. 녹요옥수(綠腰玉樹)의 춤을 만들었고 심아지에게서 노래를 배웠다.
- 60) 단안절(段安節) : 생졸년 미상이며 산둥성 임치(臨淄) 사람으로 장군 단지현(段志玄)과 재상 단문창(段文昌)의 후손이며 태상소경 단성식(段成式)의 아들이자 온정균(溫庭筠)의 사위이다. 관직은 국자감 사업(司業)에 이르고 어려서부터 음률을 좋아하여 악물을 잘 하고 스스로 도곡(度曲)할 줄 알았으며 악부의 율법을 자세히 서술하였다. 《악부잡록(樂府雜錄)》을 지었는데 《교방기(教坊記)》를 보고 첨삭하여 지었다.
- 61) 비파록(琵琶錄) : 당나라 단안절이 지은 비파 음악 자료이다. 《악부잡록》의 별칭이다. 비파 연주법 삼재(三才)를 사계절에 빗대어 상징하였다. 〈풍속통(風

에 이르기를, “〈녹요(緜腰)는 본디 〈녹요(錄要)〉이니 악공이 곡을 바치면 황제가 그 요체를 기록하게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백거이의 〈양류지사(楊柳枝詞)〉⁶²⁾에 이르기를 “〈육요〉와 〈수조가두(水調歌頭)〉⁶³⁾는 집집마다 노래하고, 〈백설(白雪)〉과 〈매화(梅花)〉⁶⁴⁾는 곳곳에서 불렀다.(六么水調家家唱, 白雪梅花處處吹)”라고 하였고, 또〈청가육절구(聽歌六絕句)〉⁶⁵⁾안에 〈낙세〉⁶⁵⁾ 한 편에 이르기를,

관현악 연주가 번잡하니 박자가 점차 뻑뻑해지니	管急弦繁拍漸稠
녹요는 이리저리 나뒹굴다 첫소절을 마치네	綠腰宛轉曲終頭
진실로 알겠네 낙세의 음악이 울려 퍼진들	誠知樂世聲聲樂
늙고 병든 사람은 들어도 근심할 수 밖에 없다오	老病人聽未免愁

라고 하였는데, 주석에서 말하기를, “〈낙세〉는 일명 〈육요〉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俗通)에 “비파는 근대의 악공이 만들었는데 연원은 알지 못한다. 길이가 3척 5촌이고 천자인 삼재와 오행을 본받았고 4개의 줄은 사계절을 형상하였다.”라고 하였다.

- 62) 양류지사(楊柳枝詞) : 백거이가 지은 7언절구로 《잡곡가사(雜曲歌辭)》에 수록되었다. 버드나무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여 시인의 유려한 심경을 표현하였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六么水調家家唱 白雪梅花處處吹 古歌舊曲君休聽 聽取新翻楊柳枝”
- 63) 수조가두(水調歌頭) : 옛 사패(詞牌) 이름으로, 강남호(江南好)·화범염노(花犯念奴)·원회곡(元會曲)·대성유(臺城遊)·개가(凱歌) 등의 별칭이 있다. 쌍조 95자 전단 9구 4평운, 후단 10구 4평운체에 따른 것이다. 송나라 신종(神宗) 때에 소식(蘇軾)이 규양 가 있으면서 “내가 바람을 타고 돌아가고 싶으니, 구슬로 된 높은 진각에서, 추위를 못 견딜까 염려되도다.”라고 하였다. 《詞譜 23 水調歌頭》
- 64) 매화(梅花) : 당나라 시인 최도융(崔道融 ?~907)이 지은 5언율시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數萼初含雪孤標畫本難 香中別有韻 清極不知寒 橫笛和愁聽 斜枝倚病看 朔風如解意 容易莫摧殘”
- 65) 청가육절구(聽歌六絕句) : 백거이가 지은 여섯 노래 가사로 하만자(何滿子), 청도자가(聽都子歌), 낙세, 수조가두 등이며 원문은 다음과 같다. “管急弦繁拍漸稠 綠腰宛轉曲終頭 誠知樂世聲聲樂 老病人聽未免愁”

왕건(王建)의 <공사(宮詞)>⁶⁶⁾에 이르기를, “비파는 먼저 <육요> 첫머리를 연주한다.(琵琶先抹六么頭)”라고 하기 때문에 당나라 사람들이 요(腰)자를 요(么)자로 적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오직 백거이와 왕건뿐임을 알겠다. 누군가 말하기를, “이 곡의 박자는 6글자를 넘지 않기 때문에 <육요>라고 했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백거이가 또 홀로<낙세>라고 부른 대목에 대해 다른 책에는 보이지 않는다. 《청상잡기(靑箱雜記)》⁶⁷⁾에 이르기를, “가곡 중에 <녹요(錄要)>라는 것이 있으니 <예상우의곡(霓裳羽衣曲)>의 중요한 박자를 기록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예상우의곡>은 바로 궁조(宮調)이니 이 곡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사대부들이 논의하는데 일찍이 자세하게 강론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발언하여 사실과 이치가 서로 어긋나는 풍조를 근심하였다. 다행히 이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마치 취송(聚訟)⁶⁸⁾처럼 하는데 불과하였다. 만약 공격해서 바로잡는 사람이 없다면 후세에는 따라서 혼란하게 되고, 더러 천하에 화란을 남기게 될 테니 악곡은 더 이상 언급할 수 없게 된다.

《비파록》에 또 이르렀다. “정원(貞元)⁶⁹⁾ 연간에 강곤륜(康崑崙)⁷⁰⁾은

66) 왕건(王建)의 공사(宮詞) : 왕건(768~835)이 지은 사패이다. 왕건은 자가 중초(仲初)이고 영천(潁川)사람이다. 협주사마(陝州司馬)가 되어 왕사마(王司馬)로 불렸으며 장적(張籍)과 교분이 있어 악부를 같이 이끌었다. 명저 중에 《전가행(田家行)》, 《수부요(水夫謠)》, 《우림행(羽林行)》, 《사호행(射虎行)》, 《고종군(古從軍)》, 《도요수(渡遼水)》, 《전가유객(田家留客)》, 《망부석(望夫石)》등은 궁중 생활을 묘사하였기에 공사(宮詞)라고도 부르며 별도로 시집을 만들었다.

67) 청상잡기(靑箱雜記) : 북송대 소무(邵武) 사람 오처후(吳處厚)가 지은 것으로 모두 10권이다. 오대(五代)와 송대 조야(朝野)의 잡사(雜事)와 시화(詩話) 및 장고(掌故) 등을 기록하고 있다.

68) 취송(聚訟) : 여러 설을 가지고 분분히 서로 다투어 정론(定論)이 없는 것을 이른다. 《후한서(後漢書)》 권35 <조포열전(曹褒列傳)>에 “길 옆에 집을 지으면 3년이 걸려도 완성할 수 없고 예(禮)를 따지는 사람이 모인 것을 이룸하여 취송이라 한다.[作舍道旁, 三年不成, 會禮之家, 名爲聚訟.]” 하였다.

69) 정원(貞元) : 당(唐) 덕종(德宗)의 연호. 785~805년.

70) 강곤륜(康崑崙) : 《신당서》 권22 <예악지(禮樂志)>에 “양주곡은 본래 서량(西涼)에서 바쳤는데, 그 소리가 본래 궁조(宮調)이고 대편(大遍)과 소편(小遍)이

비파 연주의 일인자로 양시(兩市)⁷¹⁾의 기우제에서 음악 연주를 다투었는데, 강곤륜이 동채루(東綵樓)에 올라가 새로 우조(羽調)로 번안(翻案)한〈녹요〉을 비파로 연주하였는데 반드시 적수가 없다고 여겼다. 곡을 마치자 서시(西市)의 성루 위에 어떤 여장부가 나와서 악기를 안고 말하기를, ‘나 역시 이 곡을 연주하려는데 아울러 풍향조(楓香調) 속으로 바꾸겠다.’라고 하고 비파를 연주하는데 소리가 벼락처럼 우렁차서 절묘하여 입신(入神)의 경지였다. 강곤륜이 절하고 스승으로 칭하였다. 여장부가 옷을 바꿔 입고 나오니 바로 승려 선본(善本)으로 속성(俗姓)은 단씨(段氏)였다.”

지금의〈육요〉가 세상에 유행한 것은 4가지이다. 황종우(黃鍾羽)는 바로 세상에서 반섭조(般涉調)라고 부르고 협종우(夾鍾羽)는 세상에서 중려조(中呂調)라고 부르며, 임종우(林鍾羽)는 세상에서는 고평조(高平調)라고 부르고 이척우(夷則羽)는 세상에서 선려조(仙呂調)라고 부르니 모두 우조(羽調)이다. 강곤륜이 이른바 ‘새로 번안한 곡’은 지금 남아있는 4곡 중에 한 종류인가? 아니면 다른 우조인가? 이는 알 수 없다. 단악사(段樂師)가 이른바 ‘풍향조’는 드러난 전거가 있지 않는데 지금 남아있는 4곡 중에 한 종류인가? 아니면 다른 사조(詞調)인가? 이는 알 수 없다.

구양수(歐陽脩)가 말하기를, “〈육요화십팔(六么花十八)〉⁷²⁾을 즐겨 본다”라고 하였다. 이 곡 안에는 한 첩(疊)에 이름난 꽃 18송이가 나오는데, 앞뒤로 18박자이고 또한 4화박(花拍)⁷³⁾이 있어서 모두 22박자이다. 음악가들 사이에 유전하는 이른바 화박이라는 것은 아마 정박자(正拍子)는 아니

있었다. 정원 초기에 악공 강곤륜이 그 소리를 비파에다 붙여 옥신전(玉宸殿)에서 연주하였으므로 옥신궁조(玉宸宮調)라고도 한다.”라고 하였다.

- 71) 양시(兩市) : 장안성 안에 거리를 좌우로 나누어 동시와 서시를 만든 것이다.
 72) 육요화십팔(六么花十八) : 〈육요(六么)〉 악곡 중 한 편으로 앞뒤로 18박자가 있다. 송대 구양수의 《옥루춘(玉樓春)》에 “술잔이 깊어 유리처럼 매끄러운지 모를 정도이고, 육요화십팔을 즐겨 본다(杯深不觉琉璃滑, 貪看六么花十八.)”라고 하였으니 무곡(舞曲) 이름이다.
 73) 화박(花拍) : 악곡의 정박자 이외에 부가된 박자이다. 다른 전거가 없으며 〈화십팔(花十八)〉 곡에 18박자와 4화박이 있다고 하였다.

다. 곡절과 억양이 즐거워서 춤 역시 그것을 따라 맞춘다. 그러나 <축구육요(築球六么)⁷⁴>를 춤추는데 <화십팔(花十八)>부분에 이르러 더욱 기이하다.

II. 《碧鷄漫志》 제4권 역주 [4.43~4.50조]

[4.43[원]] 蘭陵王

《蘭陵王》, 北齊史及《隋唐嘉話》稱: 齊文襄之子長恭封蘭陵王, 與周師戰, 嘗著假面對敵, 擊周師金墉城下, 勇冠三軍。武士共歌謠之, 曰《蘭陵王入陣曲》。今越調《蘭陵王》, 凡三段二十四拍, 或曰遺聲也。此曲聲犯正宮, 管色用大凡字、大一字、勾字, 故亦名大犯。又有大石調《蘭陵王慢》, 殊非舊曲。周齊之際, 未有前後十六拍慢曲子耳。

[4.43[역]] 난릉왕

<난릉왕(蘭陵王)>⁷⁵에 대해서 《북제사(北齊史)》와 《수당가화(隋唐嘉話)》⁷⁶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북제(北齊) 문양제(文襄帝)의 아들 고장공(高長恭)이 난릉왕에 봉해졌는데 북주(北周) 군대와 전투가 벌어져 자 일찍이 가면을 쓰고 대적하여 북주의 군대를 금용성(金墉城)⁷⁷ 아래에

74) 축구육요(築球六麼): 하주(賀鑄, 1052~1125)가 지은 <목란화(木蘭花)·은황안주향단발(銀簧雁柱香檀撥)>에 “銀簧雁柱香檀撥, 鏤板三聲催細抹, 舞腰輕怯絳裙長, 羞按築球花十八.”가 나온다.

75) 난릉왕(蘭陵王): 능왕(陵王)이라고도 하는데, 북제 난릉왕 고장공(北齊蘭陵王高長恭)의 파진악(破陣樂)으로, 장공의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 적을 위압하지 못하므로 그가 동면(銅面)을 쓰고 진중에 들어가자 만인이 놀라 물러났다. 그리하여 금용성(金墉城) 싸움에 이겨 위명(威名)을 크게 떨치니 체인(齊人)이 이 곡(曲)을 지어 지금까지 유전한다.

76) 수당가화(隋唐嘉話): 당나라 수필 소설집으로 유숙(劉餗)이 지었다. 유숙은 생몰년 미상으로 자는 정경(鼎卿)이며 팽성(彭城) 사람이다. 역사학자 유지기(柳知几)의 아들로서 집현전 학사에 이르렀다. 수당가화는 남북조부터 당나라 개원 연간에 이르는 역사적 인물의 사적을 기록하였는데 주로 태종과 무후 두 왕조 기사가 대부분이다.

서 그들을 격퇴하니 용맹함이 삼군(三軍)⁷⁸의 으뜸이었다. 무사들이 모두 노래하니 <난릉왕입진곡(蘭陵王入陣曲)>이라 하였다.” 현재 월조(越調)⁷⁹인 <난릉왕>은 모두 3단(段)에 24박자이며 누구는 고대의 남겨진 음악이라고 하였다. 이 곡조의 소리는 정궁조(正宮調)를 범하여 관색보(管色譜)⁸⁰에는 ‘대범(大犯)’자, ‘대일(大—)’자, ‘구(勾)’자를 쓰기 때문에 또한 <대범곡(大犯曲)>이라고 이름하기도 한다. 또한 대석조(大石調)인 <난릉왕만(蘭陵王慢)>이 있는데 전혀 옛날 곡조가 아니다. 왜냐하면 북주와 북제 사이에는 그동안 16박자의 느린 곡조는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4.44] 虞美人

《虞美人》, 《脞說》稱起于項籍「虞兮」之歌。予謂後世以此命名可也, 曲起于當時, 非也。曾子宣夫人魏氏作《虞美人草行》, 有云: 「三軍散盡旌旗倒, 玉帳佳人坐中老。香魂夜逐劍光飛, 青血化為原上草。芳菲寂寞寄寒枝, 舊曲聞來似斂眉。」又云: 「當時遺事久成空, 慷慨尊前為誰舞?」亦有就曲誌其事者, 世以為工。其詞云: 「帳前草草軍情變, 月下旌旗亂。褫衣推枕愴離情, 遠風吹下楚歌聲。正三更。撫騅欲上重相顧, 艷態花無主, 手中蓮鐔凜秋霜。九泉歸去是仙鄉, 恨茫茫。」黃載萬追和之, 壓倒前輩矣。其詞云:

77) 금용성(金墉城): 중국 하남성 낙양현(洛陽縣)의 옛 낙양성 서북 모퉁이에 있는 성으로, 삼국 시대 위 명제(魏明帝)가 쌓았다. 위주(魏主) 조방(曹芳)과 진(晉)나라의 혜제(惠帝) 등이 폐위된 뒤에 옮겨진 장소로 일컬어지는데 여기서는 견고한 성을 뜻하는 금성(金城)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78) 삼군(三軍): 세 군부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큰 제후국의 정규군 전체를 가리킨다. 《주례(周禮)》〈하관사마(夏官司馬)〉에 “군대를 편성함은 1만 2500명을 1군으로 한다. 왕은 6군, 대국(大國)은 3군, 차국(次國)은 2군, 소국은 1군으로 한다.(凡制軍, 萬有兩千五百人為軍, 王六軍, 大國三軍, 次國二軍, 小國一軍)”라고 하였다.

79) 월조(越調): 13조(調) 중의 하나이다. 13조는 황중조(黃鍾調)·정궁조(正宮調)·대석조(大石調)·소석조(小石調)·선려조(仙呂調)·중려조(中呂調)·남려조(南呂調)·쌍조(雙調)·월조·상조(商調)·상각조(商角調)·반섭조(般涉調)·자모조(子母調)이다.

80) 관색보(管色譜): 송나라 때 민속 악보 중에 관현악기의 악보를 관색보라 불렀다.

「世間離恨何時了? 不為英雄少。楚歌聲起伯圖休, 一似□□□□水東流。葛荒葵老蕪城暮, 玉貌知何處? 至今芳草解婆娑, 只有當年魂魄未消磨。」按《益州草木記》:「雅州名山縣出虞美人草, 如雞冠花。葉兩兩相對, 為唱《虞美人》曲, 應拍而舞, 他曲則否。」《賈氏談錄》:「褒斜山谷中有虞美人草, 狀如雞冠, 大葉相對。或唱《虞美人》, 則兩葉如人拊掌之狀, 頗中節拍。」《酉陽雜俎》云:「舞草出雅州, 獨莖三葉, 葉如決明, 一葉在莖端, 兩葉居莖之半相對。人或近之歌, 及抵掌謳曲, 葉動如舞。」《益部方物圖贊》改虞作娛, 云:「今世所傳《虞美人》曲, 下音俚調, 非楚虞姬作。意其草纖柔, 為歌氣所動, 故其葉至小者或若動搖, 美人以為娛耳。」《筆談》云:「高郵桑景舒性知音, 舊聞虞美人草, 遇人作《虞美人》曲, 枝葉皆動, 他曲不然。試之, 如所傳。詳其曲, 皆吳音也。他日取琴, 試用吳音製一曲, 對草鼓之, 枝葉亦動, 乃目曰《虞美人操》。其聲調與舊曲始末不相近, 而草輒應之者, 律法同管也。今盛行江湖間, 人亦莫知其如何為吳音。」《東齋記事》云:「虞美人草, 唱他曲亦動, 傳者過矣。」予考六家說, 各有異同。方物圖贊最穿鑿, 無所稽據。舊曲固非虞姬作, 若便謂下音俚調, 嘻其甚矣。亦聞蜀中數處有此草, 予皆未之見, 恐種族異, 則所感歌亦異。然舊曲三, 其一屬中呂調, 其中一呂宮, 近世轉入黃鍾宮。此草應拍而舞, 應舊曲乎? 新曲乎? 桑氏吳音, 合舊曲乎? 新曲乎? 恨無可問者。又不知吳草與蜀產有無同類也。

[4.44] 우미인

〈우미인곡(虞美人曲)〉⁸¹⁾에 대해서 《좌설(脞說)》에서는 항우(項羽)의 〈우혜(虞兮)〉⁸²⁾의 노래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내가 생각건대 후

81) 우미인곡(虞美人曲): 사패 이름으로 일명 〈일강춘수(一江春水)〉, 〈옥호수(玉壺水)〉, 〈무산십이봉(巫山十二峰)〉 등으로 불린다. 이옥(李煜)과 모문석(毛文錫)의 사패를 정본으로 삼는다. 이옥의 시는 쌍조(雙調) 56자이고 앞뒤 단락이 각각 4구이고 두 개의 측운과 평운이 있다. 모문석의 시는 쌍조 58자이고 앞뒤 단락이 각각 5구이고 측운 2개 평운 3개이다. 대표작으로 이옥의 《춘화추월하시료(春花秋月何時了)》《풍회소원정무록(風回小院庭蕪綠)》가 있다.

82) 우혜(虞兮): 항우가 사면초가에 빠지자 총희 우미인에게 지은 시이다. “힘은

대에는 이런 식으로 이름 짓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가곡이 그 당시에 기원하였다는 것은 틀렸다. 증포(曾布)⁸³⁾의 부인 위씨(魏氏)⁸⁴⁾가 지은 <우미인초행(虞美人草行)>에서 말하였다.

삼군이 모두 흩어지고 깃발이 넘어가자
옥 휘장 속 미인은 앉은 채로 늙었구나
향긋한 님은 밤마다 검 광채 쫓아 날고
푸른 선혈⁸⁵⁾은 들관 위 풀이 되었구나
향초의 외로운 마음 찬 가지에 부치고
옛 곡조 들려오니 눈썹을 찌푸리는 듯

三軍散盡旌旗倒
玉帳佳人坐中老
香魂夜逐劍光飛
青血化為原上草
芳菲寂寞寄寒枝
舊曲聞來似斂眉

또한 말하길 “당시 남긴 고사는 오랫동안 공허하게 되니, 술잔 앞 비분강개한 마음으로 누구 위해 춤출거나.(當時遺事久成空 慷慨尊前為誰舞)”라고 했다.

또한 이 가곡을 가지고 그 고사를 기록하는 사람도 있으니 세상사람이

산을 뽑을 만하고 기개는 세상을 덮었건만, 시운이 이롭지 못함이어 오추마가 가지 않는구나. 오추마가 가지 않음은 어쩔 수 없거니와, 우미인이 우미인이 너를 어찌한단 말이나.(力拔山兮氣蓋世, 時不利兮驪不逝, 驪不逝兮可奈何, 虞兮虞兮奈若何)”

- 83) 증포(曾布) : 1036~1107. 송대의 대신으로, 자는 자선(子宣), 증역점(曾易占)의 아들이고,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인 증공(曾鞏)의 이모제(異母弟)이다. 송 신종(宋神宗)의 연호인 원풍(元豐 1078~1085)과 철종(哲宗)의 연호인 원우(元祐 1086~1094) 연간에 왕안석(王安石)의 신법당과 사마광(司馬光)의 구법당이 정치적으로 대립하였는데, 증포는 왕안석의 일당이다.
- 84) 부인 위씨(魏氏) : 북송의 재상 증포(曾布 자는 자선(子宣))의 아내 위완(魏完)이 지은 사패이다. 위완은 자가 옥여(玉如)이고, 등성(鄧城) 사람이다. 시론가 위태(魏泰)의 누이이자 북송을 대표하는 여류사인이다. 증포가 재상이라 처음에는 영국부인(瀛國夫人)에 봉해졌다 노국부인(魯國夫人)에 봉해지니 사람들이 위부인(魏夫人)이라 불렀다. 《고문진보(古文眞寶)》 전집(前集)에 실려 있는 본은 증공(曾鞏) 작품이라고 되어 있다.
- 85) 푸른 선혈 : 눈물의 다른 말로서 당나라 시인 두목(杜牧)의 <두추낭(杜秋娘)>에 이르기를, “청혈을 끝없이 뿌리노니 하늘을 우러러 누구에게 물을까[淸血灑不盡 仰天知問誰]”라고 하였다.

공고롭다고 여겼다. 그는 사(詞)에서 말하였다.

군막 앞 풀 무성하니 군세가 바뀌고	帳前草草軍情變
달빛 아래 깃발은 어지러이 펄럭이네	月下旌旗亂
갑옷 벗고 베개 밀어내니 이별의 슬픔 서럽고	褫衣推枕愴離情
먼 바람에 초나라 노랫소리 ⁸⁶⁾ 실려오네	遠風吹下楚歌聲
마침 삼경이로구나	正三更
오주마 어루만지며 올라타니 거둬 돌아보네	撫騶欲上重相顧
농염한 자태의 꽃은 주인 잃었으니	艷態花無主
손에 쥔 보검 ⁸⁷⁾ 은 추상마냥 매섭구나	手中蓮鏢凜秋霜
구천에 돌아가면 이곳이 신선세계인데	九泉歸去是仙鄉
아득하기 그지없어 한스럽구려	恨茫茫

황대여(黃大輿)⁸⁸⁾이 따라서 화답하니 선배 시인을 압도하였다. 화답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상에 이별의 한은 언제 끝나려나	世間離恨何時了
영웅이 적기 때문은 아니라네	不為英雄少
초나라 노래 일어나자 폐업의 책략 ⁸⁹⁾ 어긋나니	楚歌聲起伯圖休

86) 초나라 노랫소리 : 향우가이 한군(漢軍)과 싸우면서 해하(垓下)에 진을 치고 있을 때, 한군 및 제후군(諸侯軍)의 겹겹 포위 속에서 밤중에 사방에서 초가(楚歌)가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고는 크게 놀라서 말하기를, “한(漢) 나라가 이미 초(楚) 나라를 차지했다 말이나.”하고, 스스로 시를 지어 슬피 노래하였다.

87) 보검 : 불록한 무늬로 또한 칼날이 예리한 보검을 가리킨다. 오대시대 제기(齊己)가 지은 <고검가(古劍歌)>에 “지금 사람은 억지로 칼을 갈려 하지 않나니, 연꽃 무늬와 별 모양 보검은 닮아지는 법 없나오.[今人不要強磨礱 蓮鏢星文未曾沒]”라고 하였다.

88) 황대여(黃大輿) : 송나라 사천 사람으로 자는 재만(載萬)이고 민산우경(岷山耦耕)이라 자호하였다. 악부의 가사를 잘 지어서 <악부광변풍(樂府廣變風)>을 지었다. 당나라 이래로 재사가 매화를 노래한 가사를 수록해 《매원(梅苑)》 10 권을 편찬하였다. 왕작이 사천에서 지낼 때 교류하던 인사로 다른 전거를 찾을 수 없다.

89) 폐업의 책략 : 폐도(伯圖)는 폐업(霸業)의 책략으로 폐도(霸圖)와 같다. 향우가

한결같이 강물이 동쪽으로 흐르는 듯 ⁹⁰⁾	一似□□□□水東流
칩과 해바라기 뒤엉켜 황폐한 성곽에 저물고	葛荒葵老蕪城暮
어여쁜 얼굴이 어디 있는지 아는가	玉貌知何處
지금 향풀은 사바세계 ⁹¹⁾ 를 벗어났는데	至今芳草解婆娑
오직 그날 혼백만은 사라지지 않네	只有當年魂魄未消磨

《익주초목기(益州草木記)》에 따르면 “아주(雅州) 명산현(名山縣)에 우미인초(虞美人草)이 있는데, 마치 맨드라미⁹²⁾ 같다. 풀잎이 쌍쌍히 짝지어 나왔어 〈우미인(虞美人)〉곡을 부르면 박자에 맞게 춤추지만, 다른 곡을 부르면 춤추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가씨담록(賈氏談錄)》⁹³⁾에, “포사산(褒斜山)⁹⁴⁾ 깊은 계곡에 우미인풀이 있는데 모습이 담벼슬 같고 커다란 잎이 서로 마주한다. 어떤 사람(우미인)곡을 부르면 두 잎이 마치 사람이 박수를 치는 모습 같은데 박자가 제법 잘 맞았다.”라고 하였다. 《유양잡조(西陽雜俎)》⁹⁵⁾에 말하기를, “춤추는 풀은 아주에서 있는데 즐기 하나

초패왕(楚霸王)이 되어 천하를 제패할 위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유방에게 패배하면서 꿈이 와해된 것을 말한다.

- 90) 한결같이 흐르는 듯 : 4자 결자(缺字)가 표시되었지만, 화초수편(花草粹編)에는 “옥 휘장 속 미인은 피눈물 쏟아 동쪽으로 한가득 흘러가오(玉帳佳人血泪满东流)”라고 되어 있다.
- 91) 사바세계 :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사바 세계라 한다. 사바는 범어이니, 뜻으로 옮기면 감인(堪忍)이다. 즉 이 세상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산다는 뜻이다.
- 92) 맨드라미 : 원문은 ‘계관화(鷄冠花)’로 맨드라미꽃이 마치 닭뿔처럼 생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本草 鷄冠》
- 93) 가씨담록(賈氏談錄) : 송나라 장계(張洎)의 저술이다. 장계는 자가 사암(思黯)인데, 고쳐서 해인(偕仁)이라 했다. 가황중(賈黃中)에게서 들은 내용을 책으로 편찬했기 때문에 서명을 《가씨담록》이라 했다.
- 94) 포사산(褒斜山) : 중국 섬서성(陝西省) 종남산(終南山)의 골짜기 이름으로 남쪽 입구가 ‘포(褒)’라 하고 북쪽 입구가 ‘사(斜)’이기 때문에 ‘포사곡(褒斜谷)’이라고도 한다.
- 95) 유양잡조(西陽雜俎) : 당나라 단성식(段成式)이 지은 소설이다. 자서전 성격의 소설집으로 전권 20권 속집 10권이며 도가와 불교의 귀괴(鬼怪)한 사건을 기록하거나 사건, 동식물, 음식 등을 분류하여 편찬하였는데 서진(西晉)의 장화(張華)가 지은 《박물지(博物志)》와 유사하다.

에 잎이 세 개인데 잎은 결명자(決明子)⁹⁶ 같고 잎 하나는 줄기 끝에 나며 나머지 두 잎은 줄기 절반에 자리하여 서로 마주보고 있다. 사람이 더러 가까이 다가가 노래하거나 박수 치며 곡을 노래한다면 잎이 춤추는 듯 움직인다.”라고 하였다. 《익부방물도찬(益部方物圖贊)》⁹⁷에서 ‘우(虞)’를 ‘오(娛)’로 고치면서, “지금 세상에 전해지는 <우미인>곡은 저속한 소리와 속된 음조이니 초나라 우희(虞姬)의 작품이 아니다. 그 풀이 섬세하고 부드러워 그 노래하는 기운에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잎이 더러 요동치는 듯하여 우미인을 즐겁게 했을 따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몽계필담(夢溪筆談)》⁹⁸에서 말하기를, “고우상(高郵桑)과 경서성(景舒性)은 친한 친구로 옛날에 우미인초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이 지은 <우미인>곡을 불렀는데, 가지와 잎이 모두 움직였지만 다른 곡을 연주하자 움직이지 않았다. 시험해보니 전해지는 소문과 같았다. 그 곡을 자세히 뜯어보니 모두 오(吳)나라 음이다. 다른 날 거문고를 가져다 시험삼아 오나라 음을 이용하여 한 곡을 지었고 우미인초를 마주하고 연주하였더니 줄기와 잎이 역시 움직였다. 그 노래의 제목을 <우미인조(虞美人操)>라고 하였다. 그 소리와 곡조가 옛 곡과 시종일관 근사하지 않아도 풀은 매번 반응하였던 것은 율법이 동일⁹⁹ 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강호(江湖) 사이에

96) 결명자(決明子) : 콩과의 한해살이풀. 줄기는 높이가 1미터 정도이며, 여름에 노란 꽃이 핀다. 열매는 활처럼 굽은 길쭉한 협과(莢果)를 맺는데 그 안의 씨를 ‘결명자’라고 하여 차나 약으로 쓴다.

97) 익부방물도찬(益部方物圖贊) : 송나라 문학 역사 학자 송기(宋祁)가 저술한 책으로 가우(嘉祐) 2년(1057)에 편찬하였다. 원래 책 제목은 《익부방물략기(益部方物畧記)》로 검남(劍南) 지역의 초목, 약재, 여러 짐승들의 기록한 책이다.

98) 몽계필담(夢溪筆談) : 중국 송(宋) 나라 문신·학자인 심괄(沈括)의 문집. 26권. 만년에 거거하던 몽계에서 저술함. 기사(故事)·변증(辨證)·악률(樂律)·상수(象數)·인사(人事) 등 17부문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99) 율법이 동일 : 원문은 ‘동관(同管)’인데, 관(管)은 율관(律管)을 말한다. 율관은 율리(律呂)를 정하는 관을 말한다. 율리는 옛날에 악률(樂律)을 정하는 기구이다. 중국 황제(黃帝) 시대 때 영륜(伶倫)이 대나무를 잘라 통을 만들어서, 통의 길이를 가지고 성음(聲音)의 청탁(淸濁)과 고하(高下)를 구분하였는데, 악기의 음은 이것에 의하여 기준을 삼는다. 음양(陰陽)을 각각 여섯으로 나누어,

서 성행하였지만, 사람들 역시 그것이 어찌하여 오나라 음이 되는지는 아는 이가 없다.”라고 하였다. 《동재기사(東齋記事)》¹⁰⁰에 말하기를, “우미 인초는 다른 곡을 노래해도 역시 움직이니 소문을 전하던 사람이 과장하였다.”라고 하였다.

내가 여섯 작가의 말을 살펴보았는데 각자 차이가 있었다. <방물도찬(方物圖贊)>은 가장 천착(穿鑿)¹⁰¹하였지만 근거할 곳은 없다. 옛날 가곡은 진정 우희의 작품이 아니지만 마치 저속한 소리와 속된 성조라고 말하니 매우 한탄스럽다. 또한 촉(蜀)지방¹⁰²의 여러 곳에서 이 풀이 난다고 들었지만, 나는 모두 본 적은 없어서 아마 품종이 달라서 감동하는 노래 역시 다르다고 의심하였다. 그러나 옛노래 3곡 중에서 한 곡은 중려조(中呂調)에 속하고 다른 하나는 중려궁(中呂宮)에 속하는데 근래에는 황종궁(黃鐘宮)으로 바뀌어 포함되었다. 이 풀이 박자에 맞추어 춤을 춘다면 옛 곡에 반응하는가? 새 곡에 반응하는가? 고우상 씨의 ‘오나라 음’이란 옛 곡을 합친 것인가? 새 곡을 합친 것인가? 물어볼 만한 이가 없어서 안타깝다. 또한 오나라의 풀과 촉지방에서 나는 풀에 같은 종류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4.45] 安公子

《安公子》, 《通典》及《樂府雜錄》稱: 煬帝將幸江都, 樂工王令言者, 妙達音律。其子彈胡琵琶作《安公子》曲, 令言驚問: 「那得此?」對曰:

양(陽)이 율(律)이 되고 음(陰)이 여(呂)가 되며, 이를 합해 12음이 된다.

100) 동재기사(東齋記事): 북송의 학자 범진(范鎮, 1007~1088)이 당시 보고 들은 당시 사건을 기록한 수필집이다. 범진은 자가 경인(景仁)이고 사천성 성도(成都)사람이다. 북송의 전장(典章)과 제도, 인사들의 숨겨진 비화, 사천지역의 풍토와 인정 등 다채롭게 수록하였다. 《宋史·范鎮傳》

101) 천착(穿鑿): 어떤 한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이치에 닿지 않는 주장을 펴는 것을 말한다.

102) 촉(蜀)지방: 촉(蜀)은 산악지대인 중국 서쪽 사천성(四川省) 지방의 별칭으로, 변방의 험준한 산길을 뜻한다. 주로 검각(劍閣) 이남지역을 말하며 이곳을 기반으로 유비가 촉한(蜀漢)이 세워졌기에 이렇게 불리었다.

「宮中新翻。」令言流涕曰：「慎毋從行。宮，君也。宮聲往而不返，大駕不復回矣。」據《理道要訣》，唐時《安公子》在太簇角，今已不傳。其見于世者，中呂調有近，般涉調有令，然尾聲皆無所歸宿，亦異矣。

[4.45역] 안공자

〈안공자(安公子)〉¹⁰³⁾에 대해 《통전(通典)》¹⁰⁴⁾과 《악부잡록(樂府雜錄)》¹⁰⁵⁾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수양제(隋煬帝)가 강도(江都)¹⁰⁶⁾로 행행(行幸)¹⁰⁷⁾하러는데 악공 왕영언(王令言)¹⁰⁸⁾이라는 사람이 음를을

- 103) 안공자(安公子) : 당나라 최영흠(崔令欽)의 《교방기(教坊記)》에 “수(隋)나라 대업(大業) 말년에 양제(煬帝)가 양주(揚州)에 행행할 적에 악인(樂人) 왕영언(王令言)은 나이가 많다 해서 가지 않고 그 아들이 따라가게 되었다. 아들이 집에서 비파를 탔는데, 영언이 놀라서 그 곡조를 물으니 아들이 말하기를 ‘대내(大內)에서 새로 만든 곡조로 이름은 〈안공자〉입니다.’ 하자 영언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에게 ‘너는 대가(大駕)를 호종하지 말라. 반드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라 하였다. 까닭을 물으니, ‘이 곡조는 궁성(宮聲)이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다. 궁(宮)은 군주이다.’라고 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 104) 통전(通典) : 당나라 두우(杜佑, 735~812)는 자가 군경(君卿)으로, 당나라 때의 학자이다. 시호는 안간(安簡)이며, 덕종 때 혼란한 국가 재정을 정리하였고, 806년에는 사도 동평장사가 되어 기국공(岐國公)에 봉하여졌다. 통전은 총 200권으로 편찬한 책으로, 중국의 전장제도(典章制度)를 총망라한 통사(通史)이다. 시기로는 당우(唐虞)의 전설 시대부터 당나라 때까지이며, 분야로는 식화(食貨), 선거(選舉), 직관(職官), 예의, 음악, 형(刑), 주군(州郡), 변방 등 여덟 개 항목으로 나누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 105) 악부잡록(樂府雜錄) : 당나라 단안절(段安節)이 지은 비파 음악 자료이다. 《비파록(琵琶錄)》의 별칭이다. 비파 연주법 삼재(三才)를 사계절에 빗대어 상징하였다. 〈풍속통(風俗通)〉에 “비파는 근대의 악공이 만들었는데 연원은 알지 못한다. 길이가 3척 5촌이고 천지인 삼재와 오행을 본받았고 4개의 줄은 사계절을 형상하였다.”라고 하였다.
- 106) 수양제(隋煬帝)가 강도(江都) : 수양제가 제위에 오른 이듬해부터 수백만 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각종 궁궐과 운하 등 엄청난 토목 공사를 일으켰는가 하면, 말년에 이르러서는 세 차례나 강도, 즉 지금의 양주(揚州)에 내려가 노닐면서 도성으로 돌아가지 않고 도읍으로 삼아 황음무도한 생활하다가 재위 15년에 병란이 일어나 신하인 우문화급(宇文化及)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隋書》
- 107) 행행(行幸) : 임금이 대궐 밖으로 거동하는 일. 유행(遊幸)이라고 한다. 여기

오묘하게 통달하였다. 그의 아들이 호비파(胡琵琶)를 연주하며〈안공자〉곡을 지었는데, 왕영언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 곡을 지었느냐?’라고 물으니, ‘궁중에서 연주한 곡을 새로 번안(翻案)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왕영언은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아서라, 따라가지 말거라. 궁조(宮調)는 임금이다.¹⁰⁹⁾ 궁성(宮聲)은 가버리고 돌아오지 않나니 황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도요결(理道要訣)》¹¹⁰⁾에 따르면, 당나라 시절에 〈안공자〉는 태주(太簇)¹¹¹⁾ 각조(角調)에 속하지만, 오늘날에는 전해지지 않는다. 세상에 알려진 것은 중려조(中呂調) 근곡(近曲)¹¹²⁾가 있고 반섭조(般涉調) 영곡(令曲)¹¹³⁾가 있다. 그러나 대단원¹¹⁴⁾에는 모두 귀결하는 대목이 없으니 역시

서는 강도로 유람을 떠나는 대규모 행차이다.

- 108) 왕영언(王令言) : 수 양제 때의 저명한 음악가이다. 《악원(樂苑)》에 “수조가는 수 양제(隋煬帝)가 강도에 갔을 때에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곡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연주하자, 소리가 매우 웅장스럽고 처량했다. 왕영언이 이를 듣고 나서 그 제자에게 이르기를, ‘떠나가는 소리만 있고 돌아오는 소리는 없으니 황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뒤에 과연 그와 같았다.” 하였다.
- 109) 궁조(宮調)는 임금이다 : 《예기》 악기에 “첫째인 궁(宮)은 임금으로 곧 황종(黃鍾)이고, 둘째인 상(商)은 신하로 곧 태주(太簇)이고, 셋째인 각(角)은 백성으로 곧 고선(姑洗)이다. 임종(林鍾)으로서 일[事]이 되는 것은 치(徵)이고, 남려(南呂)로서 물[物]이 되는 것은 우(羽)이다.”라고 보인다.
- 110) 이도요결(理道要訣) : 두우의 《통전(通典)》 200권은 고대 제일의 정전류 저작으로 최고의 문헌가치를 갖추었다. 《도리요결》 10권은 방대한 《통전》에서 편리하게 열람하도록 발췌한 것으로 문헌의 정수만 모았지만 《통전》에 비해 문헌가치가 떨어져 명나라 이후에 실전(失傳)하였다.
- 111) 태주(太簇) : 고대 악률(樂律)의 표준이 되는 음(音)으로, 양률은 율(律)이라고 하고 음률은 여(呂)라 한다. 양률은 황종(黃鍾), 태주, 고선(姑洗), 유빈(夷賓), 이칙(夷則), 무역(無射)이고, 음률은 대려(大呂), 협종(夾鍾), 중려(仲呂), 임종(林鍾), 남려(南呂), 응종(應鍾)이다.
- 112) 근곡(近曲) : 당송(唐宋)시대의 잡곡 중 체제의 일종이다. 송나라 장염(張炎)의 《사원(詞源)》에 “주방언(周邦彥)과 여러 사인이 또다시 만곡(慢曲), 인곡(引曲), 근곡을 더하여 연주하되 더러 궁조(宮調)를 우조(羽調)로 바꾸어 삼범(三犯), 사범(四犯)의 곡조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 113) 영곡(令曲) : 사조의 한 종류이다. 소령(小令)이나 영사(令詞)라고도 한다. 특징은 일반적인 악조보다 짧고 자수가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詞)의 제목

다르다.

[4.46 圓] 水調

《水調歌》，《理道要訣》所載唐樂曲，南呂商時號水調。予數見唐人說水調，各有不同。予因疑水調非曲名，乃俗呼音調之異名，今決矣。按《隋唐嘉話》：煬帝鑿汴河，自製《水調歌》，即是水調中製歌也。世以今曲《水調歌》為煬帝自製，今曲迺中呂調，而唐所謂南呂商，則今俗呼中管林鍾商也。《脞說》云：「水調《河傳》，煬帝將幸江都時所製，聲韻悲切，帝喜之。樂工王令言謂其弟子曰：不返矣。水調《河傳》，但有去聲。」此說與《安公子》事相類，蓋水調中《河傳》也。《明皇雜錄》云：「祿山犯順，議欲遷幸。帝置酒樓上，命作樂。有進《水調歌》者，曰：『山川滿目淚沾衣，富貴榮華能幾時。不見只今汾水上，惟有年年秋雁飛。』上問誰為此曲，曰：『李嶠。』上曰：『真才子。』不終飲而罷。」此水調中一句七字曲也。白樂天《聽水調詩》云：「五言一遍最殷勤。調少情多似有因。不會常時翻曲意，此聲腸斷為何人。」《脞說》亦云：「《水調》第五遍，五言調，聲最愁苦。」此水調中一句五字曲。又有多遍，似是大曲也。樂天詩又云：「時唱一聲新水調，謾人道是採菱歌。」此水調中新腔也。《南唐近事》云：「元宗留心內寵，宴私擊鞠無虛日。嘗命樂工楊花飛奏《水調》詞進酒，花飛惟唱『南朝天子好風流』一句，如是數四。上悟，覆杯賜金帛。」此又一句七字。然既曰命奏《水調》詞，則是令楊花飛水調中撰詞也。《外史樵杙》云：「王衍泛舟巡閩中，舟子皆衣錦繡，自製水調《銀漢曲》。」此水調中製《銀漢曲》也。今世所唱中呂調《水調歌》，迺是以俗呼音調異名者名曲，雖首尾亦各有五言兩句，決非樂天所聞之曲。《河傳》，唐詞存者二，其一屬南呂宮，凡前段平韻，後仄

뒤에, '만(慢)·영(令)' 같은 곡조 빠르기를 나타내는 말이 붙기도 하고, 연창법(演唱法)을 나타내는 '최자(催子)', 서곡(序曲)을 의미하는 말인 '인자(引子)' 같은 말이 따라 붙기도 한다.

114) 대단원: 원문 '미성(尾聲)'은 악곡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이나 결속하는 부분을 지칭한다.

韻。其一乃今《怨王孫》曲，屬無射宮。以此知煬帝所製《河傳》，不傳已久。然歐陽永叔所集詞內，《河傳》附越調，亦《怨王孫》曲。今世《河傳》乃仙呂調，皆令也。

[4.46역] 수조

〈수조가(水調歌)〉¹¹⁵⁾는 《이도요걸》에 실린 당나라 악곡으로 남려상(南呂商)에 속하며 당시에는 〈수조(水調)〉라고 불렸다. 나는 당나라 사람들이 〈수조〉에 대해 말한 것을 자주 보았는데 저마다 달랐기에 나는 이 때문에 〈수조〉가 곡명이 아니라, 바로 세속에서 음조(音調)를 부르는 다른 명칭이라고 의심하였는데 지금 명확하게 결론을 냈다. 《수당가화(隋唐嘉話)》¹¹⁶⁾를 살펴보면, 수양제(隋煬帝)가 변하(汴河)¹¹⁷⁾에 운하를 뚫고 스스로 〈수조가〉를 지으니 이것이 바로 〈수조〉 중에 제가(製歌)이다. 세상 사람들은 현재의 곡조 〈수조가〉는 수양제가 스스로 지은 것이라 여기지만, 현재의 곡조는 바로 중려조(中呂調)인 반면에 당나라 것은 이른바 남려상이니 지금 세속에서는 중관림종상(中管林鍾商)이라 부른다.

《좌설(胙說)》¹¹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수조〉의 〈하전(河

115) 수조가(水調歌) : 사패의 이름으로 수양제가 변하(汴河)를 개통할 때 〈수조가〉를 지었는데 당나라 때 이를 부연하여 대곡(大曲)이 되었다. 산서(散序), 중서(中序), 입파(入破)의 세 부분이 있는데 수조가두는 중서의 제1장에 해당하여 두 곡조로 94자에서 97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소식의 수조가두 〈중추(中秋)〉가 유명하다.

116) 수당가화(隋唐嘉話) : 당나라 때 유숙(劉餗)이 지은 필기소설집이다. 유숙은 자가 정경(鼎卿)이고 강소서 서주(徐州)사람이며 생몰연대가 자세하지 않다. 남북조시대부터 당나라 개원 연간의 역사와 인물의 언행, 사적을 기록하였는데 태종과 측천무후 두 조정의 일화가 대부분이다. 《당서(唐書)》와 《자치통감(資治通鑑)》와 의 기초사료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문학 예술의 재료가 풍부하여 참고할 가치가 높다.

117) 변하(汴河) : 수 양제는 변하(汴河)와 회수(淮水)를 잇는 운하를 만들어서 그 독을 따라 버들을 심고 무려 40여 개의 이궁(離宮)을 지었다. 변하는 당나라 송나라 시대에 동남쪽의 각 성에서 경사로 곡물을 수송해 올 때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수로로 지금 하남성 카이펑(開封) 유역을 흐르는 강이다.

118) 좌설(胙說) : 중국어 사전의 한 종류로 자잘하면서 비속적인 단어나 의론을

傳)》¹¹⁹)은 수양제가 강도(江都)로 행행(行幸)하려 할 때 지은 것으로 음성
와 운율이 슬프고 처절해서 수양제가 좋아하였다. 악공 왕영언(王令言)이
자신의 제자에게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수조>의 <하전>은 다만
거성(去聲)만 있다.” 이 설명은 <안공자(安公子)>의 고사와 비슷하니 대개
<수조> 중의 <하전(河傳)>뿐이다.

《명황잡록(明皇雜錄)》¹²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안록산(安祿山)
이 반역하여 천도(遷都)하려고 논의하였다. 현종이 누각 위에 술자리를
마련해놓고 악곡을 지으라고 어명을 내렸는데, <수조가>를 지어 바치는
사람이 있었다.

눈에 가득한 산천 보며 옷깃 적시니	山川滿目淚沾衣
부귀영화란 얼마나 누릴 수 있을는지	富貴榮華能幾時
보지 못하였나 지금 분수 ¹²¹) 물가에는	不見只今汾水上
해마다 가을 기러기 날아갈 뿐이니	惟有年年秋雁飛

현종이 ‘누가 이 가곡을 지었는가?’하고 하문하니, ‘이교(李嶠)¹²²)입니

해석한 것이다. 역대 여러 학자들이 남겼는데 지금은 송(宋)나라 장군방(張君房)의 저술이 전해진다.

119) 하전(河傳) : 남녀의 애정을 다룬 노래를 말한다. 하전이라는 이름은 수나라
에 시작되었다. 전설에는 수양제가 강도로 떠날 때 지은 것으로 지금은 전해
지지 않는다. 지금 보이는 것은 당나라 온정균(溫庭筠)이 지은 것이 가장 이
른 시기에 지어진 것이다. 《화간집(花間集)》에 각 사패를 수록하였다.

120) 명황잡록(明皇雜錄) : 당나라 정치희(鄭處誨)가 지은 것으로 당 현종의 일대
기와 숙종의 국난극복 사실을 기록하였다. 내용이 자못 풍부하고 문자가 생
동감있다. 현종은 초기에 정치에 힘썼지만, 만년에 정사를 돌보지 않고 음악
과 여색에 빠졌다는 사실을 가감없이 기록하였다. 《通鑑》《新唐書》

121) 분수(汾水) : 한(漢)나라의 무제(武帝)가 분수(汾水 산서성에 있는 큰 강)에서
가을날에 배를 타고 놀다가, 가을바람이 소슬한 것에 놀라 추풍사(秋風辭)라
는 노래를 지었다.

122) 이교(李嶠) : 645~714. 당나라 초당(初唐) 때의 시인으로 자는 거산(巨山)이
다. 오언율시(五言律詩)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두심언(杜審言), 최융(崔融),
소미도(蘇味道)와 함께 ‘문장사우(文章四友)’로 불렸다.

다.’라고 대답하였다. 황제가 ‘참으로 뛰어난 재주로다.’라 하고는 술을 다 마시지 못하고 자리를 파하였다.” 이 〈수조〉 중에 1구는 7자인 곡조이다.

백거이의 〈청수조시(聽水調詩)〉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언시 한편이 가장 은근하나니
가락 짧고 감정 많은데 기인한 듯
항상 번곡할 마음 갖지 못하나니
이 노래는 누구 위해 애간장 끊나

五言一遍最殷勤
調少情多似有因
不會常時翻曲意
此聲腸斷為何人

《좌설》 또한 “〈수조〉 제5편은 오언시의 가락으로 소리가 가장 슬프고 도 씩씩하다.”라고 하였다. 이 〈수조〉 중에 1구는 5자인 곡조이고 또 많은 시편이 있어서 마치 대곡(大曲)¹²³ 같았다. 백거이 시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때때로 새로운 수조 한 곡 부르고서, 농담꾼은 이것을 채룽가(採菱歌)¹²⁴라 한다오.(時唱一聲新水調 謾人道是採菱歌)”라고 하니 이것은 〈수조〉 중의 신강(新腔)¹²⁵ 이다.

《남당근사(南唐近事)》¹²⁶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원종(元宗)¹²⁷

123) 대곡(大曲) : 전통음악이다. 중국 역사상 존재하는 중요한 음악 중에 대형 악곡으로 특히 한위(漢魏)의 상화가(相和歌), 육조시대의 청상악(淸商樂), 당송의 연악(燕樂)의 대곡을 가리킨다. 이 가곡들은 악기 연주와 대형 가무곡을 결합한다. 뒤에 나오는 용어들은 모두 당송시대의 대곡 곡조 이름이다. 곡조의 빠르기나 박자의 특징으로 곡조 이름을 삼았다. 이러한 곡조가 하나의 대곡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대편(大遍)이라고 한다. 왕국유(王國維)의 《당송대 곡고(唐宋大曲考)》에 내용이 나온다.

124) 채룽가(採菱歌) : 악부〈청상곡(淸商曲)〉의 이름이다. 곽박(郭璞)의 〈강부(江賦)〉에 “갑자기 저녁을 잊고 밤에 돌아감이어, 채룽가 부르며 뱃전을 두드리도다.[忽忘夕而宵歸 詠採菱以叩舷]”라고 하였다. ‘월녀채룽(越女採菱)’인데, 이백의 작품 중에 〈월녀사(越女詞)〉가 있으며, 청상가사(淸商歌辭) 가운데 〈채룽가(採菱歌)〉가 있다.

125) 신강(新腔) : 곡조 중에 새롭게 탈속(脫俗)적인 악곡의 성질을 말한다. 강(腔)은 관현악기의 속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악기의 연주를 말하거나, 입으로 발성(發聲)하는 것을 의미하니 진강(秦腔)·곤강(崑腔)과 같다.

126) 남당근사(南唐近事) : 송나라 정문보(鄭文寶)가 지은 유명한 송나라 원나라 사이의 필기소설이다. 정문보(953~1013)은 자는 중현(仲賢), 백옥(伯玉)이고

은 마음에 두고 총애하며 연회에서 사사롭게 격국(擊鞠)¹²⁸⁾을 하면서 헛되이 보내는 날은 없었다. 일찍이 악공 양화비(楊花飛)에게 명하여 <수조사>를 연주하고 술을 권하게 하니, 양화비는 오직 ‘남조(南朝)의 천자는 풍류를 좋아한다네.(南朝天子好風流)’라는 한 구만 부르며 이렇게 4번 반복하였다. 황제가 자신을 풍자하는 것이라고 깨닫고 술잔을 엮어놓고 황금과 비단을 하사하였다.” 이것도 한 구에 7자인 곡조이다. 그러나 이미 <수조사>를 연주하도록 명하였다고 말하였으니 이것은 양화비가 <수조> 중의 찬사(撰詞)하도록 한 것이다.

《외사도울(外史樵杙)》¹²⁹⁾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왕연(王衍)¹³⁰⁾이 배를 띄워놓고 낭중(閩中)¹³¹⁾을 순방하였는데, 배에 탄 승객 모두 수놓은 비단옷을 입었고 스스로 <수조은한곡(水調銀漢曲)을 지었다.” 이것은 <수조> 중에 지은 <은한곡>이다. 지금 세상에 노래하는 중려조(中呂調)인 <수조가>는 바로 세속에서 음조를 부르는 다른 명칭으로 곡조를 이르는 것이니, 비록 첫 구와 마지막 구에 또한 각각 5언으로 된 2구가 있더라도, 결코 백거이가 들었던 곡조는 아닌 것이다. <하전>은 《당사(唐詞)》에 2

복건성 정주(汀洲) 사람이다. 전서를 잘 쓰고 거문고 연주에 능하며 시로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 풍격이 청아해서 구양수와 사마광에 칭송을 받았다.

127) 원종(元宗) : 오대시대 남당(南唐)의 제왕으로 이름은 이경(李璟)이다. 남당은 아버지 열조(烈祖) 이승(李昇)이 남경에 건국하였다가 아들 이욱(李煜)이 송나라에 항복하여 3대로 단명한 왕조이다.

128) 격국(擊鞠) : 말을 타고 나무로 만든 몽둥이로 가죽 공을 치면서 점수를 겨루는 경기이다. 이칭으로 마구(馬球), 타구(打毬), 격구(擊毬)라고 하며 동한(東漢) 시대에 출현하여 당나라 때 성행하였다.

129) 외사도울(外史樵杙) : 송나라 장당영(張唐英)이 지은 사천성 일대의 역사서로 일명 《촉도울(蜀樵杙)》이라고도 한다. 《전촉개국기(前蜀開國記)》와 《후촉실록(後蜀實錄)》을 근본으로 순열(荀悅)의 《한기(漢記)》를 모방하여 편년체로 편찬하였다. 왕건(王建), 맹지상(孟知祥)의 사적이 자세하게 기록되었다. 장당영은 자가 차공(次功)이고 호는 황송자(黃松子)이다.

130) 왕연(王衍) : 오대 시기 전촉(前蜀)의 국왕이다. 어려서 왕위에 올라 음란한 짓을 일삼으며 밤낮으로 술을 마시다가 후당(後唐)에게 멸망당하였다.

131) 낭중(閩中) : 중국 사천성 낭중현이다. ‘남릉(南隆)’, ‘남주(閩州)’, ‘파서(巴西)’로 불렸으며 유수(渝水)가 있어 중경(重慶)으로 흐른다.

개가 남았는데, 그 중 하나는 남려궁(南呂宮)에 속하는데, 전편은 평운(平韻)이고 후편은 측운(仄韻)이다. 그 나머지 하나는 지금의 <원왕손(怨王孫)>¹³²⁾곡으로 무석궁(無射宮)에 속한다. 이로써 수양제가 지은 <하전>이 전해지지 않은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양수(歐陽脩)가 모아 놓은 사(詞) 중에 <하전>은 월조(越調)¹³³⁾에 붙어있고, 또한 <원왕손>도 마찬가지다. 지금 세상의 <하전>은 바로 선려조(仙呂調)¹³⁴⁾이고 모두 영곡(令曲)이다.

[4.47] 萬歲樂

《萬歲樂》，唐史云：「明皇分樂為二部，堂下立奏，謂之立部伎；堂上坐奏，謂之坐部伎。坐部伎六曲，而《烏歌萬歲樂》居共四。烏歌者，武后作也。有烏能人言萬歲，因以製樂。」《通典》云：「《烏歌萬歲樂》，武太后所造。時宮中養烏，能人言，嘗稱萬歲，為樂以象之。舞三人，衣緋大袖，並畫鸚鵡冠，作烏象。」又云：「今嶺南有烏，似鸚鵡，能言，名吉了。音科。」異哉，武后也！其為昭儀至篡奪，殺一后一妃，而殺王侯將相中外士大夫不可勝計，凶忍之極。又殺諸武，僅有免者。又最甚，則親生四子，殺其二，廢徙其一，獨睿宗危得脫。視他人性命如糞草，至聞烏歌萬歲，乃欲集慶厥躬，改年號永昌。又因二齒生，改號長壽，又號延載，又號天冊萬歲，又號萬歲通天，又號長安。自昔紀號祈祝，未有如后之甚者。在眾人則欲速死，在一身則欲長久，世無是理也。按《理道要訣》，唐時大簇商樂曲有《萬歲

132) 원왕손(怨王孫) : 송나라 여류 사인(詞人) 이청조(李清照, 1084~1155?)의 사패이다. 이청조는 호가 이안거사(易安居士)이고, 산둥성 제남(濟南)사람이다. 청신한 필체와 늦가을 호숫가의 물빛과 산색을 유려하게 묘사하여 자연 풍광 속에 애정을 표현하였다. 원문을 소개한다. “湖上風來波浩渺 秋已暮紅稀香少 水光山色與人親 說不盡無窮好 蓮子已成荷葉老 清露洗蘋花汀草 眠沙鷗鷺不回頭 似也恨人歸早”

133) 월조(越調) : 상조(商調)는 월조·대석조(大石調)·고대석조(高大石調)·쌍조(雙調)·소석조(小石調)·혈지조(歇指調)·임종상(林鍾商)이다.

134) 선려조(仙呂調) : 우조(羽調)는 중려조(中呂調)·정평조(正平調)·고평조(高平調)·선려조·반섭조(般涉調)·고반섭조(高般涉調)·황중우(黃鍾羽)이다.

樂》。或曰：即《鳥歌萬歲樂》也。又舊唐史：元和八年十月，汴州韓弘撰《聖朝萬歲樂譜》三百首以進。今黃鍾宮亦有《萬歲樂》，不知起前曲或後曲。

[4.47역] 만세악

〈만세악(萬歲樂)〉에 대해 《당사(唐史)》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명황제(明皇帝)¹³⁵가 악기를 2부류로 나누니 당(堂) 아래에 서서 연주하는 것을 입부기(立部伎)라고 부르고 당 위에 앉아서 연주하는 것을 좌부기(坐部伎)라고 불렀다. 좌부기의 6곡 중에 〈조가만세악(鳥歌萬歲樂)〉이 4개를 차지한다. 조가(鳥歌)라는 것은 측천무후(則天武后)가 지은 것으로 어떤 새가 사람 말로 ‘만세(萬歲)’라고 말할 수 있었기에 이로써 음악을 지었다.”

《통전(通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가만세악〉은 측천무후가 지은 것이다. 당시 궁중에서 새를 키웠는데 사람 말을 곧잘 하였고 일찍이 ‘만세’라고 외치자 음악을 만들어 형상하였다. 춤추는 세 사람은 큰 소매가 달린 비단옷을 입었는데 모두 구관조[鸚鵡]¹³⁶ 벼슬을 그려 넣어 새의 모양을 만들었다.”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영남(嶺南)¹³⁷에 어떤 새는 마치 구관조처럼 사람 말을 잘 해서 길료(吉了)¹³⁸라고 이름하

135) 명황제(明皇帝) : 당 현종(唐玄宗)을 가리킨다. 그의 시호가 지도대성대명효황제(至道大聖大明孝皇帝)이기 때문에, 이를 줄여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

136) 구관조[鸚鵡] : 구관조(九官鳥)는 찌르레기과이며 사람의 말을 잘 흉내낸다. 모양이 비둘기나 까마귀와 비슷하고 날개길이 30cm 가량이다. 야생 상태에서는 보통 크고 날카로운 휘파람 같은 울음소리를 내지만, 다른 종류의 새소리를 잘 모방하며, 심지어 원숭이류의 울음소리와 사람의 말을 흉내내기도 한다.

137) 영남(嶺南) : 중국의 영남지역은 남령산맥(南嶺山脈) 이남 지역으로 광둥성과 광서성을 가리키며 무이산(武夷山) 아래 복건성도 포함한다.

138) 길료(吉了) : 새 이름으로 진길료(秦吉了)의 준말. 영남에 새가 있으니 구합(鸚鵡)과 같이 생겼으나 조금 크고 얼른 보아서는 분간하기 어렵다. 새집에 두고 오래 기르면 못하는 말이 없으니, 남인들이 길료(吉了)라 하였다. 《舊唐書 音樂誌》

였다.”라고 했다.

기이하도다, 무후여! 소의(昭儀)가 되었다가 황위를 찬탈¹³⁹하기까지 하고, 황후와 황비(皇妃) 한 사람씩 죽였고¹⁴⁰, 살해한 왕후장상(王侯將相)과 경향(京鄕)의 사대부는 이루다 셀 수 없을 정도이니 몹시 흉악하고 잔인하였다. 또 여러 종족인 무씨(武氏)를 죽이고 겨우 몇몇만 화를 면한 자가 있었다. 또 심지어 친자식 4명을 낳아서 두 명은 죽이고 한 명은 서민으로 폐하여 옮겨 살게 하였는데¹⁴¹ 유독 예종(睿宗)만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썩은 잡초로 여기면서 새가 만세라고 지저귀는 소리를 듣자 이에 자신의 몸에 경사를 모으려고 연호를 ‘영창(永昌)’¹⁴²이

139) 소의(昭儀)가 찬탈 : 당 고종(唐高宗)이 태자 시절에 태종의 재인(才人) 무씨(武氏)의 미모에 반하였는데, 태종이 죽자 무씨는 비구니가 되었다. 그러나 고종은 결국 무씨를 환속시켜 황후로 삼았다. 고종의 황후가 되고 고종이 죽은 뒤 아들인 중종(中宗)·예종(睿宗)을 폐하고 연호를 천수(天授), 국호를 주(周)라 개칭하고 황제에 올라 21년 동안 통치하였다. 《資治通鑑 卷199 唐紀15 太宗皇帝》

140) 황후와 죽였고 : 측천무후가 소의로 있을 때, 딸을 낳았다. 무 소의가 딸을 출산했다는 소식에 황후가 처소를 방문했다. 황후는 아기를 어르고 돌아갔고 곧 고종이 찾아왔고 아기는 죽어 있었다. “황후께서 찾아오셨습니다.”라는 증언을 말하였고 고종은 황후를 의심하게 되었고, 무고하여 황후를 더욱 깊은 곤경에 빠뜨렸다. 고종이 황후를 폐하고 무 소의를 황후로 삼았다. 이러한 방법으로 다른 황비도 처단하였다. 《舊唐書 卷6 則天皇后本紀》

141) 친자식 하였는데 : 자신의 큰아들인 홍(弘)을 태자로 세웠으나 자신의 뜻을 거스르자 짐독(鴆毒)을 마시고 죽게 하였으며, 둘째 아들 예종을 세웠다가 폐위시키고, 셋째 아들 중종(中宗)을 세웠다. 나중에 중종을 폐하고 자신이 스스로 즉위하였다. 그 과정에서 즉위를 반대한 귀척 대신을 무자비하게 죽였을 뿐 아니라 종족인 무씨로 척결하였다.

142) 영창(永昌) : 689년으로 측천무후가 즉위한지 6년이며 얼마 안가 재초(載初)로 연호를 바꾸었다. 이 당시 계보는 684년에 고종이 죽자 둘째 아들 중종이 즉위했다가 폐위되었고 셋째 아들 예종이 즉위했다가 폐위시키고 측천무후로써 제위에 오르고 690년에 국호를 주(周)로 연호를 천수(天授)로 바꾸고 황제가 되었다. 705년 재위 16년 만에 적인걸(狄仁傑) 등의 설득을 받아들여 중종을 다시 황제로 세워 당나라가 회복되었다. 중종은 위황후(韋皇后)에게 독살당하고 예종이 복위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중종의 아들 이융기(李隆基)가 황제가 되어서야 안정이 되었다.

라고 고쳤다. 또 두 개의 치아¹⁴³⁾가 생겨났기에 ‘장수(長壽)’라고 연호를 고쳤고, 또 ‘연재(延載)’라고 하고 또 ‘천책만세(天冊萬歲)’라고 하며 또 ‘만세통천(萬歲通天)’이라고 하고, 또 ‘장안(長安)’이라고 연호를 정했다.¹⁴⁴⁾ 예로부터 연호를 정할 때 축원하게 마련이라지만 축천무후처럼 심한 경우는 없었다. 백성 입장에서는 축천무후가 빨리 죽기를 바라지만, 무후 한 몸이 있어서는 오래살고 싶어하니 세상에 이러한 이치는 없다.

《이도요결(理道要訣)》에 의하면, 당나라 시절에 태주(太簇)¹⁴⁵⁾의 상조(商調)에 속하는 악곡 <만세악>이 있었는데 누구는 이것이 바로 ‘<조가만세악>’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 《구당사(舊唐史)》에 “원화(元和) 8년¹⁴⁶⁾ 10월에 변주(汴州)¹⁴⁷⁾에서 한홍(韓弘)¹⁴⁸⁾이 《성조만세악보(聖朝萬歲樂譜)》300수를 지어서 바쳤다.”라고 하였다. 지금 황종궁(黃鐘宮)¹⁴⁹⁾에도

143) 두 개의 치아 : 《신당서(新唐書)》 권76 <후비 상(后妃上)》에 “축천무후는 춘추가 많았지만 스스로 화장을 잘 하여 좌우에 있는 사람들조차 노쇠함을 느끼지 못하였는데, 어느 날 이 두 개가 났다. 이에 조서를 내려 장수(長壽)라고 개원(改元)하였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유래하여 이치는 나이가 많은 것을 뜻하게 되었다.

144) 장수(長壽)라고 정했다 : 장수 연간은 692년부터 694년까지, 연재 연간은 694년이고 천책만년 연간은 695년, 만세통천 연간은 696년에서 697년까지이며 장안 연간은 701년부터 705년까지이고 705년을 끝으로 퇴위한다.

145) 태주(太簇) : 고대 악률(樂律)의 표준이 되는 음(音)으로, 양률은 율(律)이라 하고 음률은 여(呂)라 한다. 양률은 황종(黃鍾), 태주, 고선(姑洗), 유빈(黍賓), 이칙(夷則), 무역(無射)이고, 음률은 대려(大呂), 협종(夾鍾), 중려(仲呂), 임종(林鍾), 남려(南呂), 응종(應鍾)이다.

146) 원화(元和) 8년 : 원화는 당나라 헌종(憲宗)의 연호로 806년부터 819년까지이다. 원화 8년은 서기 813년이다.

147) 변주(汴州) :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개봉(開封) 일대를 말한다.

148) 한홍(韓弘) : 765~822. 당나라 헌종(憲宗) 때의 무신(武臣)으로 헌종 원화 연간에 회서(淮西)에서 군사작전이 벌어지자 제군행영도통(諸軍行營都統)에 임명되어 공을 세웠고, 오원제(吳元濟)가 평정되자 겸시중(兼侍中)을 더하고 허국공(許國公)에 봉해졌다.

149) 황종궁(黃鐘宮) : 궁조(宮調) 이름으로 《신당서(新唐書)·예악지(禮樂志)》에 “정궁(正宮), 고궁(高宮), 중려궁(中呂宮), 도조궁(道調宮), 남려궁(南呂宮), 선려궁(仙呂宮), 황종궁이 칠궁(七宮)이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만세악〉이 있으니 당나라 때 가곡이나 혹은 송나라 때 가곡에서 발생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

[4.48원] 夜半樂

《夜半樂》，唐史云：「民間以明皇自潞州還京師，夜半舉兵，誅韋皇后，製《夜半樂》、《還京樂》二曲。」《樂府雜錄》云：「明皇自潞州入平內難，半夜斬長樂門關，領兵入宮。後撰《夜半樂》曲。」今黃鍾宮有《三臺夜半樂》，中呂調有慢、有近拍、有序，不知何者為正。

[4.48역] 야반악

〈야반악(夜半樂)〉에 대해 《당사(唐史)》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민간에서는 명황제가 노주(潞州)¹⁵⁰로부터 장안으로 귀환하면서 야밤에 군사를 일으켜 위황후(韋皇后)¹⁵¹를 처단하고 〈야반악〉과 〈환경악(還京樂)〉 두 곡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악부잡록(樂府雜錄)》에 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명황제가 노주로부터 입경하여 내란을 평정하는데 야밤에 장락궁(長樂宮)¹⁵² 대문의 빗장을 부숴버리고 군사를 이끌고 궁에 진입하였다. 이후에 〈야반악〉곡을 찬술하였다.”라고 하였다. 지금의 황종궁(黃鐘宮)¹⁵³에 속하는 〈삼대야반악(三臺夜半樂)〉이 있고, 중려조(中呂

150) 노주(潞州) : 지금의 산서성(山西省) 장치현(長治縣)을 말한다. 당 현종인 이융기(李隆基, 685~762)가 제위에 오르기 전에 노주별가(潞州別駕)를 역임하였다.

151) 위 황후(韋皇后) : 당나라 중종(中宗)의 황후로서 딸 안락공주(安樂公主)와 중종을 독살하였다. 안락공주는 측천무후의 조카 무삼사(武三思)에게 출가했고 무삼사와 간통하는 등 정치 세력을 키우며 악행을 일삼다가 임치왕(臨淄王) 현종(玄宗)이 군사를 일으켜서 축출당했다. 《新唐書》〈諸帝公主傳〉

152) 장락궁(長樂宮) : 한나라 고조(高祖)가 장안에 도읍을 정하여, 서쪽에 미양궁(未央宮)을 세우고 동쪽에 장락궁을 세워 제후와 군신의 조회를 장락궁에서 받았는데, 혜제(惠帝) 때부터 태후를 장락궁에 거처하게 하였으므로, 후세에 대왕대비 또는 대비를 장락궁이나 동조(東朝)라고 일컬었다. 여기서는 위황후가 거처하는 궁전을 의미한다.

153) 황종궁(黃鐘宮) : 우음은 궁(宮), 상(商), 각(角), 치(徵), 우(羽) 오음(五音) 가

調)154)에는 만곡(慢曲)155)이 있고 근박(近拍)156)이 있으며 서(序)157)가 있는데,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4.49] 何滿子

《何滿子》，白樂天詩云：「世傳滿子是人名。臨就刑時曲始成。一曲四詞歌八疊，從頭便是斷腸聲。」自注云：「開元中，滄州歌者姓名。臨刑進此曲以贖死，上竟不免。」元微之《何滿子歌》云：「何滿能歌能宛轉，天寶年中世稱罕。嬰刑繫在囹圄間，下調哀音歌憤懣。梨園弟子奏玄宗，一唱承恩羈網緩。便將何滿為曲名，御譜親題樂府纂。」甚矣！帝王不可妄有嗜好也。明皇喜音律，而罪人遂欲進曲贖死。然元白平生交友，聞見率同，獨紀此事少異。《盧氏雜銳》云：「甘露事後，文宗便殿觀牡丹，誦舒元興《牡丹賦》，嘆息泣下，命樂適情。宮人沈翹翹舞《何滿子》，詞云：『浮雲蔽白日』。上曰：『汝知書耶？』乃賜金臂環。」又薛逢《何滿子》詞云：「繫馬宮槐老，持杯店菊黃。故交今不見，流恨滿川光。」五字四句。樂天所謂一曲四詞，庶幾是也。歌八疊，疑有和聲，如《漁父》、《小秦王》之類。今詞屬雙調，兩段各六句，內五句各六字，一句七字。五代時尹鶚、李珣亦同此。其他諸公所作，往往只一段，而六句各六字，皆無復有五字者。字句既異，即知非舊曲。《樂府雜錄》云：「靈武刺史李靈曜置酒，坐客姓駱，唱《何滿子》，皆

운데 하나로, 소리가 가장 맑고 빠르다. 황종궁(黃鐘宮)은 12율(律)의 제1율이며 군주(君主)를 가리키며 소리가 매우 중후하다고 한다.

154) 중려조(中呂調) : 우조(羽調)는 중려조·정평조(正平調)·고평조(高平調)·선려조(仙呂調)·반섭조(般涉調)·고반섭조(高般涉調)·황종우(黃鍾羽)이다.

155) 만곡(慢曲) : 희곡 이름이다. 곡조가 느리고 완만하다. 예컨대 선려궁 《팔성감주(八聲甘州)》나 상조 《산과양(山坡羊)》같은 것이다. 대부분 느린 곡이 앞에 있고 빠른 곡이 뒤에 있다.

156) 근박(近拍) : 곡조의 빠르기를 기준으로 느린 만곡과 빠른 영곡이 있다. 근박은 영곡에 가까운 빠른 박자로 곡조의 빠르기로 곡명 뒤에 붙어서 《여지향근(荔枝香近)》처럼 제목이 된다.

157) 서(序) : 악곡의 체제로 박자의 빠르기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백거이의《예상우의가》에 “산서(散序) 6편은 박자가 없기 때문에 춤추지 않는다. ……중서(中序)부터 비로소 박자가 있어서 또한 박서(拍序)라 이름하였다.”

稱妙絕。白秀才者曰：『家有聲妓，歌此曲音調不同。』召至令歌，發聲清越，殆非常音。駱遽問曰：『莫是宮中胡二子否?』妓熟視曰：『君豈梨園駱供奉邪?』相對泣下。皆明皇時人也。」張祜作《孟才人嘆》云：「偶因歌態詠嬌嬾，傳唱宮中十二春。卻為一聲何滿子，下泉須弔孟才人。」其序稱：「武宗疾篤，孟才人以歌笙獲寵者，密侍其右。上目之曰：『吾當不諱，爾何為哉?』指笙囊泣曰：『請以此就縊。』上憫然。復曰：『妾嘗藝歌，願對上歌一曲以泄憤。』許之，乃歌一聲《何滿子》，氣亟，立隕。上令醫候之，曰：『脉尚溫而腸已絕。』上崩，將徙柩，舉之愈重。議者曰：『非俟才人乎?』命其觀至，乃舉。」偽蜀孫光憲《何滿子》一章云：「冠劍不隨君去，江河還共恩深。」似為孟才人發。祜又有《宮詞》云：「故國三千里，深宮二十年。一聲何滿子，雙淚落君前。」其詳不可得而聞也。

[4.49역] 하만자

〈하만자(何滿子)〉¹⁵⁸⁾에 대해 백거이의 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상에 전하는 만자는 인명이니
 처형될 때에 비로소 곡 완성했네
 한 곡은 네 가사에 여덟 첩이고
 처음부터 줄곧 애끓는 소리라네

世傳滿子是人名
 臨就刑時曲始成
 一曲四詞歌八疊
 從頭便是斷腸聲

자주(自註)에 “개원(開元)¹⁵⁹⁾ 연간에 창주(滄州)¹⁶⁰⁾에 살던 가수의 이름이다. 처형 당할 때 이 곡을 바쳐서 죽을죄를 대속(代贖)하였지만 현종은

158) 하만자(何滿子) : 사곡(詞曲) 이름. 당나라 개원(開元 현종(女宗)의 연호) 연간에 창주(滄洲)의 가수 이름인데, 처형당할 때에 이 곡을 올려 죽음을 속죄하려 하였으나 끝내 면하지 못하였다. 뒤에 가곡의 이름이 되었다. 화응(和凝)의 《何滿子·寫得魚牋無限》를 정본으로 삼는다. 단조(單調)는 36자, 6구에 3평운이며, 쌍조(雙調)는 74자로 앞뒤 단락 각각 6구, 4측운 등의 변체가 있다.

159) 개원(開元) : 713~741년으로, 당나라 현종(女宗) 전반기의 연호이다.

160) 창주(滄州) : 하북성 창주시로 하북성 동남부에 위치한다. 황하 지류인 호소하(胡蘇河)가 흐른다.

끝내 사형을 감면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원진(元稹)의 〈하만자가(何滿子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만은 노래도 잘 부르고 거침 없어서	何滿能歌能宛轉
천보 ¹⁶¹) 연간에 보기 드문 명창이라 하네	天寶年中世稱罕
죄를 지어 형벌 받고 감옥에 묶여있자	嬰刑繫在囹圄間
낮은 가락의 슬픈 목소리로 노래하더라	下調哀音歌
이원 제자 ¹⁶²)들은 현종을 위해 연주하니	梨園弟子奏玄宗
한번 불러 성은 입자 기망 ¹⁶³)이 느슨하네	一唱承恩羈網緩
곧장 하만이라는 이름으로 곡명 삼나니	便將何滿為曲名
어보로 친히 제목 붙여 악부를 편찬했네	御譜親題樂府纂

심하도다! 제왕은 함부로 기호를 가져서는 안 된다. 명황제는 음률을 좋아하니 죄수가 마침내 가곡을 바쳐서 죽을죄를 대속하려 하였다. 원진과 백거이는 평생지기 친구라서 보고 들은 것이 대부분 같을 텐데, 유독 이 사건만은 기록이 조금 다르다.

《노씨잡설(盧氏雜說)》¹⁶⁴)에서 이르길 “감로(甘露) 사건¹⁶⁵) 이후에 문종(文宗)이 편전(便殿)¹⁶⁶)에서 모란꽃을 바라보며 서원여(舒元輿)¹⁶⁷)의

161) 천보(天寶) : 당 현종 말기의 연호로, 742년에서 756년까지이다.

162) 이원(梨園) : 배우들의 기교를 닦는 곳이고 제자란 곧 연극하는 배우를 지칭하는 말이다. 당 현종 때 장안의 금원(禁苑) 안에 있는 이원에서 제자 3백 명을 뽑아 속악(俗樂)을 가르쳤던 데서 연유된 것이다.

163) 기망(羈網) : 기(羈)는 말에 거는 굴레이고, 망(網)은 그물이나 새장을 가리켜서 험난한 관직생활이나 외로운 궁중생활을 가리킨다. 굴레가 느슨해졌다는 것은 이원 제자가 궁중에서 하만자를 불러 재능을 인정받아 뽐뿌한 관직생활이 편해졌다는 의미이다.

164) 노씨잡설(盧氏雜說) : 당나라 노언(盧言)이 저술한 책으로 서책이나 저자에 대한 기록이 없다.

165) 감로(甘露) 사건 : 당나라 문종(文宗) 때 재상 이훈(李訓)·왕애(王涯) 등이 환관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발각되어 처형된 사건을 지칭한다. 금오청(金吾廳) 뒤 석류나무에 감로 약수가 있다고 고하여 환관들을 유인하였기에 감로 지변(甘露之變)이라고 칭한다.

〈모란부(牡丹賦)〉를 외우며 탄식하여 눈물을 흘렸다. 악공에게 명하여 감정을 위로하게 하였다. 궁인 심교교(沈翹翹)¹⁶⁸가 〈하만자〉곡에 맞춰 춤을 추었는데 가사에 ‘뜬구름이 밝은 해를 가리네(浮雲蔽白日)’¹⁶⁹라고 하였다. 황제가 ‘네가 어떻게 이 시를 아느냐?’고 묻고는 이내 금팔찌를 주었다.”라고 하였다.

또 설봉(薛逢)¹⁷⁰의 〈하만자〉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말 매어놓은 궁궐 회화나무 마르고	繫馬宮槐老
술 마시는 주막에 국화는 셋노랑네	持杯店菊黃
옛 벗님을 지금은 만날 수 없나니	故交今不見
정한 흘러보낸 냇가엔 빛이 한가득	流恨滿川光

5언절구이니 백거이가 말한 ‘한 곡은 네 가사(一曲四詞)’라는 것이 아마 이것일 것이다. ‘8첩(疊)을 노래한다(歌八疊)’라는 것은 아무래도 화성(和聲)¹⁷¹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어부사(漁父辭)〉¹⁷², 〈소진왕(小秦

166) 편전(便殿) : 임금이 평상시에 거처하는 궁전을 말한다. 편전 앞에 있는 문을 차비문(差備門), 협문(夾門)이라 한다.

167) 서원여(舒元輿) : 791~835. 당나라 사람으로 그의 모란부(牡丹賦)에 “저 하늘의 상서 기운 별이 되고 구름 되고.[圖元瑞精 有星而景 有雲而卿]”라는 구절이 있다.

168) 심교교(沈翹翹) : 오원제(吳元濟)의 딸로 액정서(掖庭署 내시부)에 들어오면서부터 성을 심씨로 바꾸고 악부에 배속되었다. 본래 방향(方響)을 배웠는데, 백옥이라 두드리면 소리가 되고, 서혁(犀革)으로 만들었기에 곡을 하사해 주도록 청하였고 황제는 하사하였다. 악기를 가지고 들어오자 〈양주곡(涼州曲)〉을 연주하였는데 음운이 밝고 빼어나서 이를 듣고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169) 뜬 가리었다 : 《문선(文選)》의 고시(古詩) 맨 첫수인데 충신이 간사한 무리들에게 가리운바 된 것을 이른다.

170) 설봉(薛逢) : 생몰년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자는 도신(陶臣)으로 산서성 포주(蒲州) 사람이다. 무종 회창(會昌) 원년(841)에 진사를 하였고 시어사·상서랑·파주(巴州)자사 등을 지내다가 비서감으로 천직되었다. 시집 10권이 있으며, 《당재자전(唐才子傳)》에 소전이 전한다.

171) 화성(和聲) : 악곡 중의 뜻이 없으며 고악부의 ‘하하하(賀賀賀)’나 ‘하하하(何

王)》¹⁷³⁾ 따위의 부류이다. 지금 전해지는 가사는 쌍조(雙調)에 배속되고 2 단락에 각각 6구절인데, 안쪽 5구절은 각각 6자이고 나머지 한 구절은 7자이다. 오대(五代)시대 윤악(尹鶚)¹⁷⁴⁾, 이순(李珣)¹⁷⁵⁾ 역시 이와 같다. 기타 사대부들이 지은 곡은 종종 한 단락뿐이되, 6구절은 각각 6자이고 모두 다시는 5자인 적이 없었다. 글자와 구절이 이미 상이하니 곧장 옛날 곡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악부잡록(樂府雜錄)》에서 이르길 “영무자사(靈武刺史) 이영요(李靈耀)¹⁷⁶⁾가 술자리를 마련했는데 좌중에 낙씨(駱氏)인 손님이 〈하만자〉를 노래하니 모두 절묘하다고 칭찬하였다. 백수재(白秀才)¹⁷⁷⁾라는 사람이 ‘집에 노래 잘하는 기녀가 있는데 이 곡을 노래한다면 음조가 다를 거요.’라고 말하고는 불러들여서 노래를 시키니 목소리가 청초하고 뛰어나 거의 일반적인 성음은 아니었다. 낙씨가 다급하게 ‘아무개는 궁중의 호이자(胡

何何)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

172) 어부사(漁父辭) : 전국시대 초 회왕(楚懷王)의 충신 굴원(屈原)이 지은 《초사(楚辭)》〈어부사〉를 가리킨다.

173) 소진왕(小秦王) : 당 태종(唐太宗)을 말함. 당나라 교방(教坊)의 곡명으로 원래 《소진왕과진악(小秦王破陣樂)》으로 양관곡(陽關曲)이라고 한다. 단조(單調) 4구, 28자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柳條金軟不勝鵝, 青粉牆頭道韃家, 燕子不來春寂寞, 小窗和雨夢梨花”

174) 윤악(尹鶚) : 896년 전후로 활동한 시사 작가이다. 생몰년은 미상이며 대략 당나라 소종 건녕(乾寧) 연간에 살면서 전촉(前蜀) 후주 왕연(王衍)을 섬겨 한림원 교서가 되었다. 성격이 해학적이고 시와 사에 능했다. 이순(李珣)과 교우하였으며 유영(柳永)과 풍조가 비슷하다. 현재 17수가 남아서 《화간집(花間集)》에 수록되었다.

175) 이순(李珣) : 만당 시기의 사인(詞人)으로 자는 덕윤(德潤)이고 사천성 재주(梓州) 사람이다. 생몰년은 미상이며 후축이 망한 이후 출사하지 않았다. 저서로 《경요집(瓊瑤集)》이 있으나 실전하였고 《당오대사(唐五代詞)》에 54수가 남아있는데 대부분 비분강개한 시이다.

176) 이영요(李靈耀) : 당나라의 장군으로 변송유후(汴宋留后) 전신옥(田神玉)의 졸병이었다가 도우후(都虞侯)가 되어 복주자사 맹감(孟鑑)을 죽이고 전승사(田承嗣)를 체포하여 변송 지역을 관장하려 하였으나 진압되어 참수되었다.

177) 백수재(白秀才) : 예전 말로 초시(初試)나 생원(生員)과 같은 말이다. 수제 신분에서 진시에 급제하면 거인(舉人)이라 하여 관직에 출사할 수 있다.

二子)가 아닌가?’라고 물으니, 기녀가 응시하며 ‘당신은 혹시 이원 제자인 낙공봉(駱供奉)이 아닐런지요.’라면서 서로 마주보며 눈물을 흘렸으니 모두 명황제 시기의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장호(張祜)가 지은 《맹재인탄(孟才人嘆)》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노래하는 자태로 인해 노래가 아름다워	偶因歌態詠嬌嗔
궁중에 전해져 불려진지 열두 해라네	傳唱宮中十二春
도리어 하만자 한 곡조 노래한다면	卻為一聲何滿子
구천에 가면 맹재인을 조문해야 하리	下泉須弔孟才人

그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종(武宗)은 병이 깊었는데, 맹재인은 노래와 생황 연주로 총애를 얻은 사람으로 황제의 최측근에서 은밀하게 모셨다. 황제가 지목하여 ‘내가 죽게 되거든 너는 어찌 할 것인가?’라고 하니, 생황을 싣 주머니를 가리키며 울면서, ‘청컨대 이 주머니 끈으로 목을 매겠습니다.’라 하니, 황제가 가엾게 여겼다. 다시 말하길 ‘첩은 일찍이 노래 부르는 재주를 가졌으니, 원컨대 황제를 마주하여 노래 한 곡 불려서 울분을 쏟아내겠습니다.’하니 허락하였다. 이내 〈하만자〉한 곡을 노래하니,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자 신 채로 숨이 끊어졌다. 황제가 어의에게 명하여 증상을 살펴보게 하니, 어의는 ‘맥박은 아직 따듯한데 내장은 이미 끊어졌습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붕어(崩御)하자, 관을 옮기려 하였는데 들어 올릴수록 무거워졌다. 논의하는 사람이, ‘맹재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하고 묻고는 맹재인의 관을 가져오라 명하자 이내 관이 들어 올려졌다.” 위촉(僞蜀)178)의 손광현(孫光憲)179)의 〈하만자〉사의 1

178) 위촉(僞蜀) : 맹지상(孟知祥)이 세운 후촉(後蜀)을 가리킨다. 후촉은 오대 때 10국 중 하나로서 후당(後唐) 명종(明宗)이 맹지상을 촉왕(蜀王)에 봉해 주었고 아들 창(禎)에 이르러 2대만에 송나라에 패망하였다.

179) 손광현(孫光憲) : 901~968. 자는 맹문(孟文), 호는 보광자(葆光子)이며 사천성 능주(陵州) 사람이다. 송나라가 건국되자 황주자사(黃州刺史)가 되었다. 《송사(宋史)》와 《십국춘추(十國春秋)》에 열전이 전한다. 경전을 좋아하여 수 천권을 수집하고 사본을 베끼고 교감하기를 즐겼다. 저서로는 《북몽쇄언(北

장에서 말하길 “관모와 도검¹⁸⁰⁾은 임금 따라 떠나지 않고, 강물은 도리어 은혜와 함께 깊어가네.(冠劍不隨君去, 江河還共恩深)”라고 하니 맹재인이 노래한 듯하다. 장호는 또 <궁사(宮詞)>¹⁸¹⁾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고향에서 삼천리 떨어진	故國三千里
깊은 궁궐의 이십 평생	深宮二十年
하만자 한 곡을 부르자	一聲何滿子
어전에 두 눈물 떨어네	雙淚落君前

자세한 내용은 들어볼 수 없었다.

[4.50] 凌波神

《凌波神》, 《開元天寶遺事》云:「帝在東都, 夢一女子, 高髻廣裳, 拜而言曰:『妾凌波池中龍女, 久護宮苑。陛下知音, 乞賜一曲。』帝為作《凌波曲》, 奏之池上, 神出波間。」《楊妃外傳》云:「上夢艷女, 梳交心髻, 大袖寬衣, 曰:『妾是陛下凌波池中龍女, 衛宮護駕實有功。陛下洞曉鈞天之音, 乞賜一曲。』夢中為鼓胡琴, 作《凌波曲》。後于凌波池奏新曲, 池中波濤涌起, 有神女出池心, 乃夢中所見女子, 因立廟池上, 歲祀之。」《明皇雜錄》云:「女伶謝阿蠻善舞《凌波曲》, 出入宮中及諸姨宅。妃子待之甚厚, 賜以金粟妝臂環。」按《理道要訣》天寶諸樂曲名, 有《凌波神》二曲, 其一在林鍾宮, 云:時號道調宮。然今之林鍾宮即時號南呂宮, 而道調宮即古之仲呂宮也。其一在南呂商, 云:時號水調。今南呂商則俗呼中管林鍾商也; 皆不

夢瑣言》, 《형태집(荊台集)》, 《글재집(橋齋集)》이 있으나, 《복몽쇄언》만 전한다. 사패는 84수가 있다.

- 180) 관모와 도검 : 옛날 관원들이 머리에 썼던 모자와 허리에 찼던 검을 말하는 것으로 문관과 무관을 가리키는데, 일반적으로 벼슬아치를 의미한다.
- 181) 궁사(宮詞) : 장호의 <궁사>는 백거이가 칭송한 작품인데, 두목(杜牧)이 추포(秋浦)의 수령으로 있으면서 장호와 더불어 시우(詩友)가 되었다. 두목이 장호의 <궁사>를 매우 애호하여 지어준 시에 “故國三千里라는 노래는 어떠한 기에, 헛되이 부른 가사가 여섯 궁전을 가득 채웠는가.”라고 하였다.

傳。予問諸樂工，云：「舊見《凌波曲》譜，不記何宮調也。世傳用之歌吹，能招來鬼神，因是久廢。」豈以龍女見形之故，相承為能招來鬼神乎？

[4.50역] 능파신

〈능파신(凌波神)〉¹⁸²⁾에 대해 《개원천보유사(開元天寶遺事)》¹⁸³⁾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황제가 동도(東都)¹⁸⁴⁾에서 꿈을 꾸었는데, 아름다운 한 여인이 높이 올림머리와 넓은 치마를 입고 절하며, ‘신첩은 능파지(凌波池)의 용녀로 오랫동안 궁궐 정원을 지켜왔습니다. 폐하께서는 음률에 정통하시니 한 곡을 하사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니 황제가 〈능파신〉을 짓고서 호숫가에 연주하자 물결 사이에서 능파신이 나왔다.”

《양비외전(楊妃外傳)》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황제가 아름다운 여인을 꿈꾸었는데 교심계(交心髻)¹⁸⁵⁾를 빗었고 큰 소매가 달린 넓은 옷을 입었다. ‘신첩은 폐하의 능파지 속에 사는 용녀입니다. 궁전을 지키고 어가(御駕)를 호종하는데 실제 공이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균천(鈞天)¹⁸⁶⁾

182) 능파신(凌波神) : 사곡(詞曲) 이름으로 능파곡(凌波曲)이라고도 한다. 《태진외기(太眞外記)》에 “당 명황(唐明皇)이 동도(東都)에서 낮잠을 자다가 꿈속에, 능파지(凌波池)에 산다는 용녀(龍女)의 청으로 능파곡을 지었는데, 능파궁(凌波宮)에 여러 문무를 모아 놓고 물가에서 이 신곡(新曲)을 연주하자 물결이 모두 솟구쳤다.” 하였다.

183) 개원천보유사(開元天寶遺事) : 천보유사(天寶遺事)라고 하며 모두 4권이다. 오대(五代) 왕인유(王仁裕)가 당나라 현종(玄宗) 개원(開元)·천보(天寶) 연간에 발생한 궁중의 잡다한 이야기 유사(遺事) 159조를 기술한 책이다. 궁중 내외의 풍속과 습관, 현종과 양귀비의 사연, 귀족들의 사치 생활 등을 기록하고 있어, 희곡 소설가들뿐만 아니라 장고가(掌故家)들도 즐겨 보았다고 한다.

184) 동도(東都) : 중국 하남성(河南省)의 낙양(洛陽)으로 전한의 고조가 장안(長安)에 도읍하고 후한의 광무(光武)가 여기에 도읍을 하였기에 동도(東都)라 불리었다.

185) 교심계(交心髻) : 여인의 올림머리의 일종으로 양갈래로 빗어서 정수리 부분에서 합쳐서 상투 모양으로 한 모습이다.

186) 균천(鈞天) : 균천광악(鈞天廣樂)을 가리킨다. 균천은 상제가 사는 곳이고 광악은 광대한 음악으로 천상의 음악을 뜻한다. 조 간자(趙簡子)가 혼수상태에서 깨어나 대부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상제가 있는 곳에 갔는데, 매우 즐거

의 음률에 통달하시니 한 곡조를 하사해주시길 비읍니다.’라고 말하였다. 꿈속에서 호금(胡琴)을 연주해서 〈능파곡〉을 지었다. 훗날 능파지에서 새로운 곡을 연주하니 연못 한가운데 파도가 용솟음 치고 신녀가 연못 가운데서 나오니 바로 꿈속에서 보았던 그 여인이었다. 따라서 연못가에 사당을 세우고 해마다 제사를 지냈다.”

《명황잡록(明皇雜錄)》¹⁸⁷⁾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악공 사아만(謝阿蠻)¹⁸⁸⁾은 〈능파곡〉에 맞추어 춤을 잘 추어서 궁중과 양귀비의 여러 이모¹⁸⁹⁾ 집을 출입하였다. 황비(皇妃)는 그녀를 매우 후하게 대접하며 황금과 곡식을 하사하여 팔찌를 장식하게 하였다.”

《이도요결(理道要訣)》에 따르면 천보(天寶) 연간에 유행한 여러 악곡 이름으로 〈능파산〉 두 곡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임종궁(林鍾宮)에 배속된다. 당시에는 도조궁(道調宮)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임종궁은 바로 그 당시에 남려궁(南呂宮)이라 불렸지만, 도조궁은 바로 옛날의 중려궁(仲呂宮)이다. 다른 하나는 남려상(南呂商)에 배속된다. 당시에는 〈수조(水調)〉

왔다. 백신(百神)들과 균천에서 놀 때 광악을 아홉 번 연주하고 온갖 춤을 추었는데, 삼대(三代)의 음악과 달라 그 소리가 마음을 동요하였다.”라고 하였다. 《史記 卷105 扁鵲列傳》

187) 명황잡록(明皇雜錄) : 당나라 정치회(鄭處誨)가 지은 것으로 당 현종의 일대기와 숙종의 국난극복 사실을 기록하였다. 내용이 자못 풍부하고 문자가 생동감있다. 현종은 초기에 정치에 힘썼지만, 만년에 정사를 돌보지 않고 음악과 여색에 빠졌다는 사실을 가감없이 기록하였다. 《通鑒》 《新唐書》

188) 사아만(謝阿蠻) : 717~757. 《능파무(凌波舞)》를 가장 잘 췌다. 당현종이 작곡하였고 양귀비가 비파를 연주하고 영왕(寧王) 이헌(李憲)이 유포리를 부르고 이귀년(李龜年)이 피리를 불어 반주하였다. 양귀비가 진귀한 팔찌를 하사하였다. 안록산의 난이 끝난 757년에 궁궐에 들어가 다시금 《능파무》를 추었다.

189) 양귀비의 여러 이모 : 양귀비(719~755)는 17세 때 현종(玄宗)의 제18왕자 수왕(壽王) 이모(李瑁)의 비(妃)가 되었다가, 현종의 눈에 들어 현종의 후궁이 되었으며 27세 때 정식으로 귀비가 되었다. 현종의 총애를 받아 황후나 다른 없는 대우를 받았고, 양국충(楊國忠) 등 친척들도 고위 관직에 대거 발탁되어 권세를 누렸다. 여러 이모들 역시 양귀비의 일족으로 귀부인으로 부귀영화를 누렸다.

라 부른다고 하였다. 오늘날 남려상은 세속에서는 중관임종상(中管林鍾商)라고 부르는데, 모두 전하지 않는다.

내가 여러 악공에게 물으니, “옛날에 〈능파곡〉악보를 보았지만 무슨 궁조(宮調)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세상에 전해지기를 〈능파곡〉을 노래하고 연주하면 귀신을 불러올 수 있기에 따라서 오래전에 폐기되었다.”라고 하였다. 어찌 용녀가 현신(現身)하였다는 이유로 소문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귀신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참고문헌>

- 徐信義 撰, 《碧鷄漫志校箋》, 國立臺灣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1981.
王灼 撰, 《碧鷄漫志》, 北京, 中華書局, 1991.
岳珍 著, 《碧鷄漫志校正》, 成都, 巴蜀書社, 2000.
江枏 疏証, 《碧鷄漫志疏証》, 南昌, 江西教育出版社, 2015.

<Abstract>

《BiJiManZhi》 established a comparatively complete theoretics system concerning The origin and ontology of Ci poetry in view of philosophical cosmologist genesis and dualism. Wang Zhuo(王灼) put forward the following Ci Poetry of the Central Ideas. Wang Zhuo is literature, theorists during the southern song dynasty. He achieved some success In the fields.

His 《BiJiManZhi》 is the highest achievement. That is the earliest extant a ci theory monographs. This monograph related to Music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i, the Ci origin, Ci criticism and so on. That

is a high works of data value and academic value. This article uses the literature review method, mathematical statistics, and logic analysis method. Study ci poetry criticism theory and analysis aesthetic standards. The first part with a longitudinal perspective Wang Zhuo for CI, CI origin theology and part of speech features are discussed. The social background and scale master piece of Ci that had mainly probed the sources and evolution of poetry, ci and the southern song dynasty, made the question of their clear to break through then sterotypes of ci the southern song dynasty to live up to Ci for Poetry and offered the theoretical proofs for remaining the song like literary traits of ci.

Key Words : 왕작(WangZhuo), 남송(Southern Song Dynasty), 벽계만 지(《BiJiManZhi》), 사학비평(Criticism of CiLiterature), 사학유파(Schools of Ci Literature)

